

제56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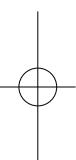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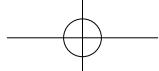
예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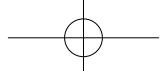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회원



Yesan Cultural Center





발간사

올해는 우리 문화원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코로나 이전과 거의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문화 사업을 펼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학교와 추사전통학교의 40여 개 강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상해 의거 90주년 기념 윤봉길 평화축제, 문화가 있는 날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추사 김정희선생 선양을 위한 전국 유명서화가 추사시문 서화전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내부에 북카페, 밴드실, 스마트 베뉴실, 동아리실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본관 건물 외부 벽과 창호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를 완성하여 건물 외관이 깨끗해졌고 난방, 누수방지 등의 기능이 보강된 건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께서 언제라도 방문하셔서 쾌적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시네마도 연중 중단 없이 운영하여 군민들께서 수준 높은 영상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네마 건물 또한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명년도에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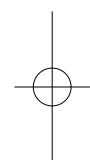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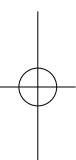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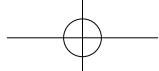
이와 같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산문화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데묶어 요약해서 ‘예산문화 56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축제, 행사, 사업 등의 사진들을 생생하게 실어 먼 훗날까지 우리 문화원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역사적 자료로 남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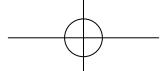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 56호’가 예산문화원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문화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김 종 옥

예산문화 2023 3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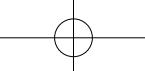
발간사 3

직원이야기 6

사업 이모저모 10

가야구곡(伽倻九曲)의 형성 배경과
시문학적(詩文學的) 형상(形象) 39

예산문화 2023 5



예산문화원, 올해도 예산군 문화발전을 위해 빛났다... 도지사상 등 4건 수상

예산문화원은 2022년 한 해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통해 예산군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예산군 등에서 총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올해 예산문화원은 40여개의 문화강좌 운영과 주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주사 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 마을 동제 지원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고 지역의 대표축제인 예당호 해맞이 행사, 윤봉길 평화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개최로 총 17억 규모의 보조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예산군 작은영화관인 예산시네마를 위탁 운영하여 올해 3월에는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예산문화원 구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12월에 개관한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은 다목적 강당, 북카페, 동아리실, 스튜디오, 밴드실, 개인연습실, 다목적 교육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 강당을 제외하고 전면 무료로 개방 운영되고 있다.

예산문화원 직원들은 문화예술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총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충청남도지사상 흥성희(사원) △충청남도의회의장상 이충환(차장) △예산군수상 이충환(차장), 최유주(사원)이 수상하였다.

김종옥 원장은 “예산문화원 직원 모두가 예산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좋은 결실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문화발전유공 표창_예산군수상_사원 최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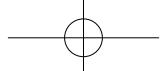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문화발전유공 표창_예산군수상_팀장 이충환



문화발전유공 표장_충청남도의회의장상_팀장 이충환



문화발전유공 표장_충청남도지사상_팀장 흥성희



예빛아리무 무용단

우리 예술문화의 그 향기를 찾아서 우리 춤활동하는 예산문화원 대표 동아리 예빛아리무 무용단을 소개합니다.

2018년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 한국무용이 신설되어 지금까지 고귀한 우리 춤의 흥과 멋에 취해 함께 모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역에 전통무용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예빛아리무 무용단은 조선시대 민속무용가이자 한국 근대춤의 아버지인 충남 홍성 출신의 한성준 전통춤 정신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준 명무는 우리나라의 신무용의 선구자로 민속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인물로 그분의 태평무, 부채산조, 부채춤, 입춤 등을 맹은섭 강사 지도하에 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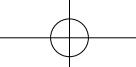
우리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통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뜰뜰 뭉친 예빛아리무는 자타공인 예산을 대표하는 전통무용동아리로 지역 행사 및 축제, 요양원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빛아리무 무용단의 공연실력은 무서운 성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충남생활문화축제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2022년 10월 제2회 예산군수기 국악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애향심과 우정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는 예빛아리무 무용단을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초청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남의문화예술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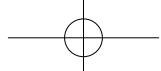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내 이름은 파비, 팝콘이죠.

산뜻한 봄바람이 부는 5월 초, 예산문화원이 위탁 운영 중인 예산시네마에 마스코트 캐릭터가 태어났다. 이름은 파비(Pop-e). 예산시네마가 개관한 해에 맞춰 태어나자마자 다섯 살이 되었다. 파비는 캐러멜 팝콘이 되고 싶어 기계를 탈출한 오리지널 팝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콩처럼 작은 검은 눈과 동그라미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코, 분홍빛이 도는 뺨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이마에는 분홍색 하트가 그려져 있다. 귀와 옆구리 그리고 꼬리에 보이는 갈색은 캐러멜이다. 목에는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가 수놓아져 있는 노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과잎을 매달고 있는 강아지의 형태를 한 팝콘.

파비는 예산시네마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당시 시안에는 파비처럼 팝콘을 형상화한 양이나 예산군의 군조를 따와 3D 안경을 쓴 황새 등이 있었다. 여러 시안 중 팀 회의를 거쳐 파비가 최종 선정되었고 몇 번의 설정 수정을 거쳐 지금의 파비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작 단계에서 캐릭터 디자인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든다 해도 대형 영화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기껏 캐릭터를 넣은 텁블러와 팝콘 용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려 해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는 창고에 먼지만 쌓이는 게 당연지사. 그렇기에 예산시네마를 이용하는 군민 및 관람객에게 이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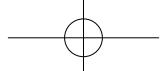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시네마는 예산문화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한 이용자에게 그 주의 영화시간표와 할인 쿠폰, 예매 방법 안내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발송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대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단어 등을 이미지로 깔끔하게 제작해 발송했다면 그때부터는 파비를 활용했다. 각종 이벤트 안내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컵과 담요도 캐릭터를 넣어 제작해 눈도장을 찍었다. 관람료 인상으로 기대작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을 기록하던 때에는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관람객에게 캐릭터를 홍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게 되었다. 바로 매월 초 진행되는 ‘개봉예정작 퀴즈’이벤트다. 한 장의 이미지에 파비와 함께 그달에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힌트를 넣어 정답을 맞춘 응모자에게 추첨을 통해 예산시네마 관람권을 증정하는 것이 내용이다. 개봉하는 영화의 개수는 매달 달라지는데, 모든 영화를 맞출 경우 당첨될 확률이 올라간다. 접수 및 결과 발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 예산시네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 퀴즈 이벤트는 8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5개월간 총 응모자가 일천일백명을 넘어섰다.

예산시네마는 이다음으로 새로운 관람권 디자인에 파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시네마 마스코트 파비가 어떻게 활용될지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2022 문화가 있는 날



1회차 종이비행기의 꿈



2회차 궁모로의 약속



3회차 임존성물총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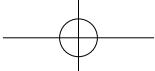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4회차 전하지못한 편지



2022 예당호 해맞이 행사





문화예술학교&추사전통학교 강의사진



가곡교실1



가곡교실2



가곡교실3



국선도1



국선도2



다이아토닉 하모니카1



다이아토닉 하모니카2



대금1



대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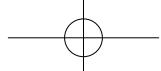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도자기1



도자기2



도자기핸드페인팅1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문화예술학교&추사전통학교 강의사진



도자기핸드페인팅2



디지털카메라1



디지털카메라2



디지털카메라3



디지털카메라4



디지털카메라5



디지털카메라6



디지털카메라7



디지털카메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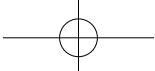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라인댄스초중고급1



라인댄스초중고급2



문인화1



문화예술학교&추사전통학교 강의사진



문인화2



민화1



민화2



수채화중급1



수채화중급2



오카리나



수채화초급1



수채화초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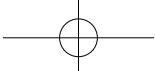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수채화초급3



아코팝스초중급1



아코팝스초중급2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문화예술학교&추사전통학교 강의사진



우쿨렐레



월요서예1



월요서예2



추사민화1



추사민화2



추사서예1



추사서예2



캘리그라피1



캘리그라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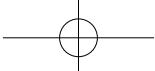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하모니카중급1



하모니카중급2



하모니카초급1



문화예술학교&추사전통학교 강의사진



하모니카초급2



한국무용1



한국무용2



한국화1



한국화2



한학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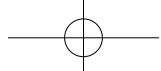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한학2



화요서예1



화요서예2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산신제



진혼무



제례진행



단체사진

마을동제



대흥면 상중리



대흥면 동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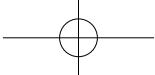
대흥면 탄방리



봉림리



봉산면 봉림리



문화예술학교&추사전통학교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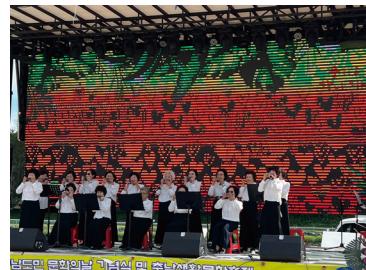
생활문화활성화



동아리 심사



오리엔테이션



충남생활문화한마당_
경연대회_드림양상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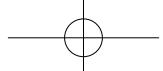
충남생활문화한마당_
경연대회_예빛아리무



충남생활문화한마당_
전시_수아림



충남생활문화한마당_
전시_포토스토리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예산문화원 외벽공사 전후사진



공사 전



공사 후



예산시네마



30만명 돌파이벤트



단체관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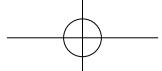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단체관람2



예산학 및 충남학





자암김구서예대전



운영위원회



심사(1)



심사(2)



심사위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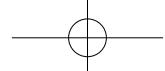
수상자 단체사진



전시회 테이프컷팅식

제49회 윤봉길 평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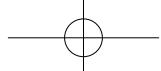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제6회 예산장터삼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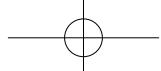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

■ 가곡클래스



■ 꿈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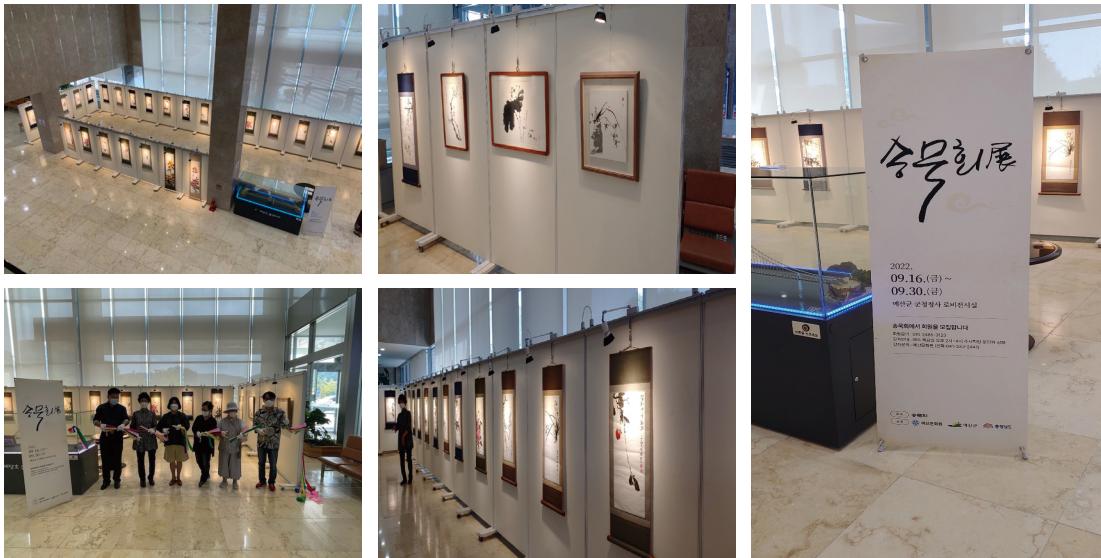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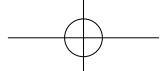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 꿈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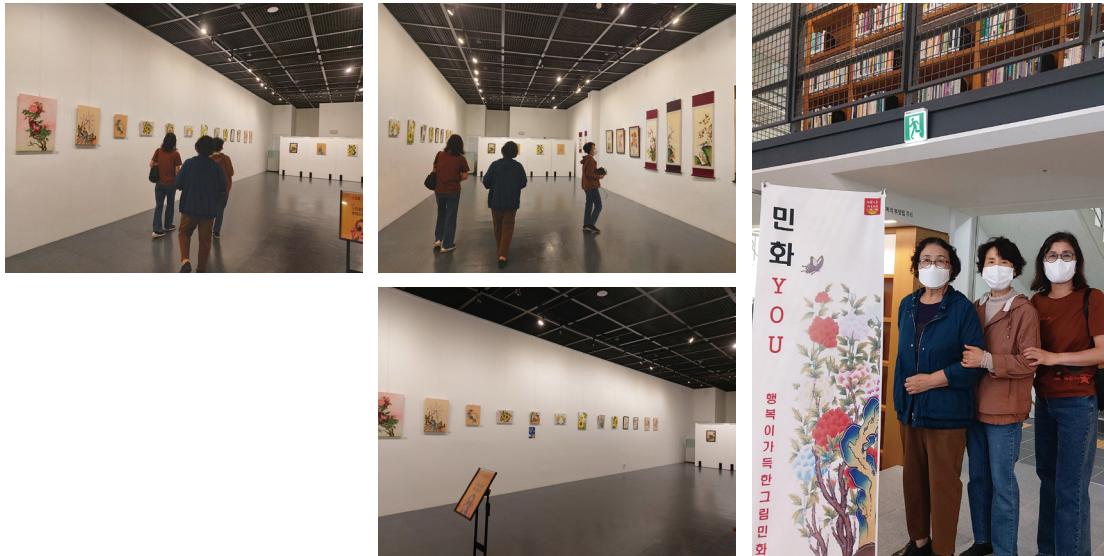


■ 송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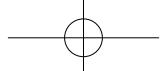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 민화유



■ 시크릿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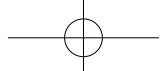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 아코팝스



■ 예담회 성과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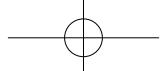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 예민해



■ 예빛아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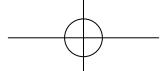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 예빛아리무



예빛아리무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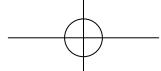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 예향스케치



■ 팬플스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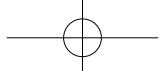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 포토스토리

· 사과축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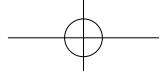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 대흥 의좋은형제 전시





■ 합동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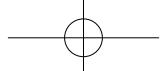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 합동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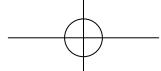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줌마노래자랑



지역문화인력프로젝트_임존성660년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



서울전(추사문중유품)



서울전 개막식



서울전 테이프컷팅식



배너전(문화가있는날)



배너전(추사휘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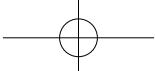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배너전(예산장터삼국축제)



예산전(1)



예산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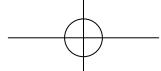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추사후회대회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부대행사(고택버스킹3)



시상식(1)



시상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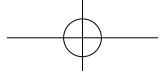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수상자 단체사진



전시회 테이프컷팅식

충남민속대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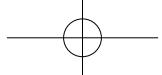
회의사진

■ 구솔채록



■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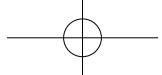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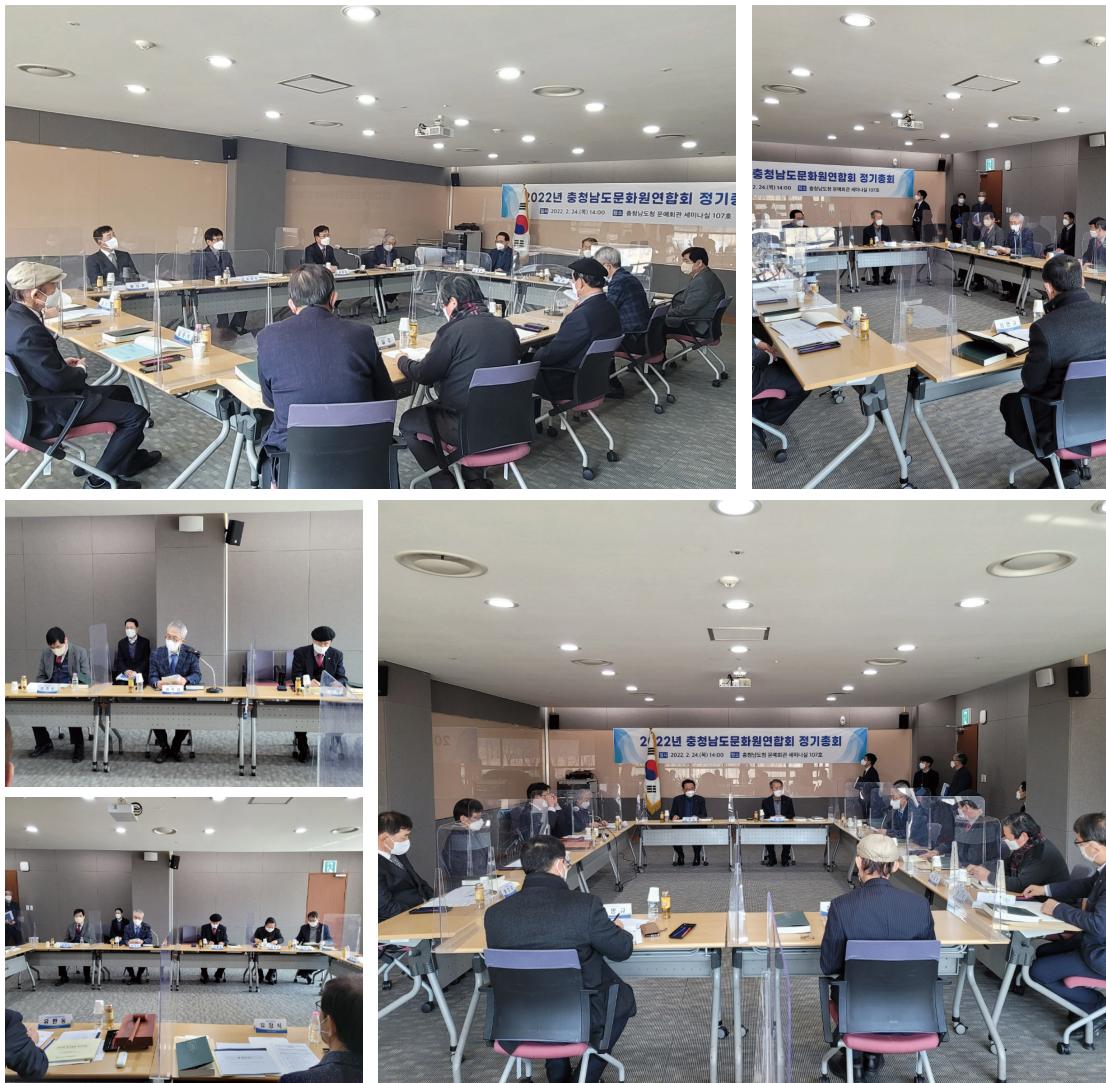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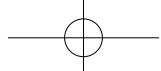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 충문연 사업실무회의





■ 충문연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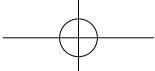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예산문화원_사업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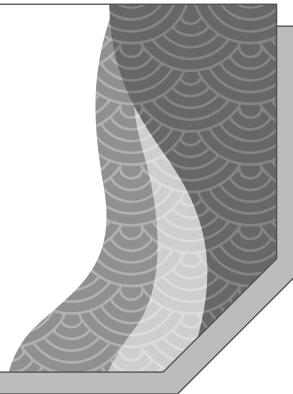
■ 회계감사





가야구곡(伽倻九曲)의 형성 배경과 시문학적(詩文學的) 형상(形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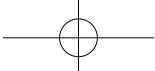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손찬식(충남대 국어국문학과)



1. 서언(緒言)

주자(朱子)(1130-1200)가 만년(晚年)에 은거구도(隱居求道)하며, 강학(講學)했던 무이산(武夷山) 주변의 계류(溪流)와 무이정사(武夷精舍)는 주자의 삶과 학문의 상징적 표상으로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인식되었고, 유자(儒者)로서의 삶의 전범이 되었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가졌던 주자에 대한 이러한 존중 의식은 조선 전기부터 하나의 문화적 양태로 등장한다. 그들은 「무이지(武夷志)」와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통해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산과 무이구곡을 상상하고, 주자의 <무이도가>를 음영하였다. 또한 그들은 주자의 <무이도가>를 성리학적 이념이 구현된 사림파 문학의 전범으로 규정짓고, 이를 모방한 다양한 구곡시가를 창작 향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구한말 이후까지도 이어져 거대한 문화사적 흐름을 형성한다.

그러나 조선조 성리학이 송대 성리학의 단순 이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일구어졌던 구곡 문화 또한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를 단순히 모방하는데 머물렀던 것만은 아니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신의 장수처(藏修處)에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설정·경영하였으며, <무이도가>에 대한 다양한 비평의식을 기반으로 한시체인 구곡시와 우리말로 이루어진 구곡가를 창작하여 이 땅의 수많은 구곡승경(九曲勝景)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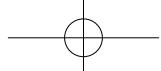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노래하였다. 이와 함께 자신이 경영했던 구곡원림을 그림으로 그려 와유(臥遊)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자의 삶과 학문을 본받고자 했던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는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 이상이었으며, 그들에 의해 꽂 피웠던 구곡문화는 조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혼용되어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문화였다.

또한 조선조에 창작된 구곡시가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효방(效倣)하여 창작되었다는 점(형식), 작품의 창작과 향유를 사대부 문인들이 전담했다는 점(향유층), 지배이념이었던 성리학적 세계관(대상 인식)이 지속적으로 작품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며, 하나의 갈래로서의 범주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구곡시가는 조선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던 16세기에 등장하여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져가던 20세기 초까지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갈래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구곡시가는 조선 사회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과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의 성쇠(盛衰)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조선조 구곡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구곡시가는 기본적으로 언어적 차이에 의해 두 가지 하위 갈래로 누어지는 데, 한시체로 창작된 구곡시(九曲詩)와 국문시가로 창작된 구곡가(九曲歌)이다. 시가 일반적으로 칠언절구(七言絕句)의 연작 한시라는 <무이도가>의 형식적 틀을 고수하는데 비해, 구곡가는 시조체나 가사체의 국문시가 형식을 차용하여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한시와 국문시가는 필연적으로 창작 동기 및 향유 방식, 그리고 작품의 미학적 성취와 지향 의식에 있어서도 변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곡시와 구곡가 모두 창작 주체인 조선조 사대부들의 구곡원림(대상)에 대한 미적 인식과 태도를 기반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가진다. 따라서 구곡시와 구곡가는 구곡시가라는 범주 속에서 구곡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면서도, 언어적·형식적 차이에 의한 갈래적 이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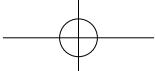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조선조 구곡시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조선



중기 사림파의 <무이도가> 수용에 대한 연구이며, 연구의 선편을 잡은 이는 이민홍이다. 그는 「증보 사림파 문학의 연구」(월인, 2000)와 「조선 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성균관대출판부, 2000)에서 조선 중기 사림파 문학의 성격을 성리학적 문학관의 내재화와 문학적 실천으로 보았고, 이를 논증하기 위해 이 시기 사림파들의 <무이도가>에 대한 시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는 <무이도가>에 대한 16세기 사림파의 시 인식을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산수시(山水詩)와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로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조선조 구곡시가 이해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후에 나타난 <무이도가> 수용의식과 관련된 연구들도 이민홍의 연구를 확장하여 조선 중기 사림파들이 가졌던 <무이도가> 시 인식의 다기한 양상을 살피고, 이 시기 문인들의 구곡시가 작품과 시 인식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조 구곡시가의 사적 전개양상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김문기는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국어교육연구』23, 1990)에서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구곡시가의 계보와 사적 전개를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라는 학파적 측면을 통해 논의하면서 대표적인 작품과 작가를 검토하고, 구곡시가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여 구곡시가의 갈래적 정체성을 명징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구곡시가의 사적 전개를 논한 다른 연구로는 조지형의 논의가 있다. 조지형은 「17-18세기 구곡가 계열 시가문학의 전개 양상」(고대 석사논문, 2008)에서 17-18세기가 구곡시가의 성장과 변전의 양상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 대표적인 구곡시가 작품들을 선별하여 작품의 미적 특질 및 사림파 문인들의 인식 및 태도를 전후 시기와 함께 통시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구곡시가의 변이와 미의식을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선지영의 연구가 있다. 선지영은 「구곡가계 시가의 변이와 미의식 연구」(조선대 석사논문, 2011)에서 구곡시가의 통시적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작품에 내재해 있는 미적 인식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구곡시가 연구와 관련하여 개별 작품 단위의 논의들도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고산구



곡가(高山九曲歌)이다. <고산구곡가>는 퇴계의 <도산십이곡>과 함께 사림파 시가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연구되어 왔고, 창작 배경, 작품의 구조적 성격, 자연관, 미적 특질, 작가의 지향의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구곡시가의 <무이도가> 수용 양상과 사적 전개에 주목한 연구들 대부분은 국문 구곡가보다 한문 구곡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조 구곡시가가 주자의 <무이도가>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은 갈래이기에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구곡시(次韻九曲詩)나 화운구곡시(和韻九曲詩)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상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곡문화의 주된 향유층이었던 조선조 사대부들이 국문시가보다 한시 창작에 더욱 능숙했던 것도 구곡가에 비해 다수의 구곡시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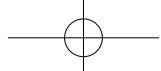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조선조 구곡문화는 구곡시가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구곡원림 경영, 정사 축조 등과 같은 전통 건축이나 전통 지리와 연계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구곡도와 같은 그림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곡문화의 핵심은 주자가 무이구곡을 대상으로 <무이도가>를 창작했던 것처럼 한시와 국문시가를 통해 조선조 사대부들이 구곡시가를 창작 향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 구곡문화를 살피는 데 있어 구곡시가를 살펴보는 것은 문화 향유의 주체인 조선조 사대부들의 정체성과 사유 방식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구곡문화의 출발이 비록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조선의 구곡문화가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음을 증명하는데 있어서도 조선조 사대부들의 구곡시가는 무엇보다 명확한 근거가 된다. 그렇기에 조선 중기 이후 <무이도가> 수용의 방향과 실제 작품의 창작과 전개양상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한다.¹⁾

그런데 「가야구곡」은 「충남도보여행」²⁾에서 충청남도의 도보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 글에서 '가야구곡 녹색길'을 소개하거나, 충남 내포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내서에서 '가야구곡'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³⁾ 그리고 이와

1)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6, 1-10쪽

2) 한국여행작가협회 편, 「충남도보여행」, 삼성출판, 2014

3) 김기현, 김현식, 「내포문화의 탄생」, 북코리아, 2014, 400-405쪽



관련한 병계 윤봉구의 「가야구곡」시는 구곡원림을 대상으로 창작된 구곡시가 및 구곡도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 목록에서 소개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인 작품에 대한 고찰은 전무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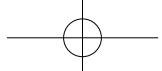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병계 윤봉구의 〈가야구곡〉을 대상으로 가야구곡의 형성 배경과 그 시문학적 형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가야구곡의 형성과 그 배경

가야구곡은 그 명칭에서 규지할 수 있듯이 가야산에 있다. 우리나라의 가야산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과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과 수륜면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가야산과 충남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및 운산면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가야산 두 곳이 있는데, 가야구곡은 충남 가야산에 있다.

가야산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야산이라는 이름보다 개산이라고 불리는데, 개산이란 이름은 안개에 있는 산이란 뜻이다. 원래 가야산의 어원은 석가모니가 해탈한 부두 가야의 가야에서 온 이름이다. 지금도 가야산은 상왕산(산스크리트어로 상왕은 부처를 뜻함), 석문봉, 원효봉, 보현동 등의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가야산이 언제부터 오늘날과 같은 지명인 가야산으로 불렸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시대별로 가야산과 관련된 지명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야산은 신라 통일 후 백제 옛 산천에 설치된 중사(中祀)(나라에서 지내던 대사(大祀) 다음가는 제사)로, 신사를 만들어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던 가야갑악(加耶岬岳)으로서 신성시하였다. 백제시대 마애불과 사방불이 가야산과 주변에 많은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내포 지역이 중국에서 신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였던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통일신라시대 가야산과 관련된 기록은 가까운 보원사지와 관련한 것이다. 즉, 장흥 보림사에 있는 보조선사 체징의 비와 진성여왕 대 부성군(지금의 서산) 태수를 지낸 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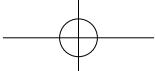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4) 김영봉, 「조선조 무이도가에 대한 평가와 차운시 양상」, 『열상고전연구』62, 2018, 153쪽, 조유영, 앞의 논문, 37쪽



원이 쓴 「법장화상전」에 나오고 있다. 884년에 만들어진 장흥 보림사 체징의 비에는 827년 체징이 구족계를 받은 곳이 가량협산(加良峽山) 보원사(普願寺)라는 기록이 나오며, 최치원의 글에서는 응주(熊州) 가야협(加耶峽) 보원사(普願寺)라고 나온다. 즉 가야라는 지명과 가량이라는 지명이 같이 쓰이고 있다. 고려시대로 내려오면 가야사를 통해 가야산에 대한 지명을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가야산 북쪽으로는 보원사가 있고, 동쪽에는 가야산의 대사찰로 가야사가 있었다. 가야사는 『고려사』 1177년(명종 7) 기록에 망이·망소이난과 관련하여 가야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 가야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발굴 조사된 가야사지에서 가량갑(加良岬)이라는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 명문 기와와 연관 있는 통일신라시대 광자대사와 진철대사의 불적에 가야갑사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시대까지 가야사의 연원이 올라갈 수 있는 점과 가량갑의 지명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쓰였던 내용이 고고학 자료로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에 현재 지명인 가야산(伽倻山)이란 명칭으로 나오고 있어 당시에 가야산이란 지명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가야산의 지맥인 문수산, 상왕산의 명칭이 별도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에서는 가야산의 세부 지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내포 지역과 관련하여 가야산이 주목된 것은 조선 후기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언급되면서이다. 『택리지(擇里志)』에서 서산·해미·태안·면천·당진·홍주·덕산·예산·신창 등 가야산이 품고 있는 앞뒤 10고을을 내포(內浦)라 하였으며, 이에 충청도 서북부라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권으로 설정하는 개념으로서 내포 지역과 가야산이 주목받게 되었다.

가야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불교 유적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가야산에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보물 제79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의 백제시대 불교 유적이 백제의 미술문화, 불교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백제시대 가야산 동쪽에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중국 남조 석굴사원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6세기 전반에 조성되었으며, 7세기에 이르러서는 가야산 북쪽 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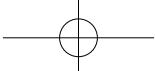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상왕산 용현계곡에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조성되었다. 당시 이러한 규모의 불상 제작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를 비롯한 한반도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야산의 백제 석불들은 태안반도에서 공주, 부여 도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내지 대중국 교역로로서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주목받아 왔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와 가야사지가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다. 보원사지에는 웅장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4호)과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서산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 등이 보원사의 규모와 융성을 전하고 있다. 특히 보물 제105호와 제106호로 지정된 서산 법인국사 탑과 서산 법인국사 탑비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폈던 인물 탄문(坦文)(900~975)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서산 법인국사 탑비에 따르면 개경에 머무르던 탄문이 보원사에 돌아오자 탄문을 맞이하는 승려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탄문은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승려로서 내포 지역의 불교 세력이 고려시대에도 중앙 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야산 주변에 미륵불들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예산 지역은 상가리, 신평리, 읍내리, 석곡리 미륵불들이 있고, 서산 지역에는 황락리, 조산리, 반양리, 산수리, 용장리 미륵이 지금도 남아 있다.⁵⁾

가야구곡이 있는 가야산은 해발 678미터로, 석문봉, 옥양봉, 연엽봉, 원효봉 등의 봉우리들이 솟아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조선시대에는 이 산에서 봄,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해미 가야산의 동남쪽은 토산이고 서북쪽은 돌산이다. 동쪽에 있는 가야사 동학(洞壑)은 곧 상고에 상왕(象王-부처)의 궁궐터이고, 서쪽에 있는 수렴동(水簾洞)은 바위와 폭포가 뛰어나게 기이하다. 북쪽에 있는 강당동(講堂洞)과 무릉동도 수석(水石)이 또한 아름다우며, 아울러 마을과 아주 가까워서 살 만한 곳이다.⁶⁾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지세(地勢)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 두 차례의 난리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6) 이중환, 「택리지」「복거총론(卜居總論)」「산수(山水)」,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83, 232쪽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⁷⁾

또한 가야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덕산의 남연군묘가 있는 상가리다. 상가리 지역은 가야구곡에 속하는 곳이며 이곳에 가야사가 위치해 있다. 가야구곡은 가야산 석문봉으로 오르는 길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아홉 개의 명승지를 가리킨다.⁸⁾

이처럼 가야산은 산수의 경관이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외적의 피해가 쉽게 당지 않는 살기 좋은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이곳에 구곡을 경영하고 그 풍광을 예찬하며 이를 시문으로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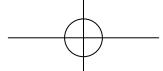
가야구곡은 죽천 김진규(1658-1716)와 병계 윤봉구(1683-1767) 및 그의 아우 윤봉오(尹鳳五, 1688-1769)가 구곡을 설정하고 그 차례와 명칭을 부여하였다. 가야구곡은 처음부터 구곡 전체로 온전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구곡 가운데 이곡(二曲)의 옥병계와 사곡(四曲)의 석문담 및 칠곡(七曲)의 와룡담 두 연못 등 세 곳은 죽천 김진규가 그 이름을 짓고 이를 팔분체로 써서 바위에 새겨 놓았다. 그 이후 나머지 육곡은 윤봉구와 그의 아우 윤봉오가 그 곳에 집을 지은 후 이름을 지었다. 그 이후 윤봉구는 가야구곡에 복거하여 지내던 중 혹은 연못, 혹은 폭포, 혹은 벼랑, 혹은 바위에 가면 그윽하고 깊숙하며 한가하고 우아하며 기이하고 웅장하며 냇물이 얕고 깊어 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⁹⁾ 그 풍광과 그와 연관한 심경을 시를 지어 표현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마침 침랑(寢郎) 강성서(姜聖瑞)가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운을 사용하여 가야구곡을 짓고 윤봉구에게 편지를 인편에 보내 보여 주고 화답을 요구했다. 그런데 강성서가 쓴 가야구곡 시는 구곡의 명칭과 순서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 이에 윤봉구는 이를 바로잡고 그가 전에 정했던 이름을 사용하여 그 곡의 차례를 따라 가야구곡 시를 지었다. 그리하여 제1곡 관어대(觀魚臺), 제2곡 옥병계(玉屏溪), 제3곡 습운천(濕雲泉), 제4곡 석문담(石門潭), 제5곡 영화담(映花潭), 제6곡 탁석천(卓錫川), 제7곡 와룡담(臥龍潭), 제8곡 고운벽(孤雲壁), 제9곡 옥량폭(玉梁瀑) 등으로 가야구곡의 명칭과 순서가 오늘날과 같이 확정된 것이다.¹⁰⁾

7) 이중환, 앞의 책, 109쪽

8) 김기현, 김현식, 「내포문화의 탄생」, 북코리아, 2014, 400쪽

9) 尹鳳九, 「屏溪集」 권1, 「伽倻九曲次武夷九曲韻」「序」, :“玉溪與石龍兩潭, 竹泉金尚書之命名, 而手書八分字, 刻之石面, 餘六曲則我弟兄卜居後名之者, 今因聖瑞之賦九曲, 而略書九曲之次第名稱, 仍及其或淵或瀑或崖或臺, 而幽深間雅, 奇壯淺奧, 莫不題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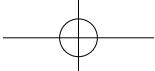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10) 尹鳳九, 「屏溪集」 권1, 「伽倻九曲次武夷九曲韻」並序, :“姜寢郎聖瑞用武夷九曲韻, 賦伽倻九曲, 寄示索和, 余已有此意者, 盖久而未成, 聖瑞真可謂善挑發人意者也, 但九曲之稱號第次, 略有錯焉, 余以前所定之號, 而從其曲次以賦焉”



가야산의 수려한 경관을 사랑하여 멀리서 이곳에 와 복거(卜居)한 이가 더러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김진규와 윤봉구는 가야산에 복거하며 가야구곡을 경영하고 그와 관련한 시문을 남기게 되었을까. 김진규는 김만중의 형인 김만기(1633-1687)의 4남2녀 가운데 차남이자 인경왕후(김만기의 장녀)의 오라비이다. 김만기의 증조부는 사계 김장생이며 조부는 김반(金槃)이고 부는 김익겸(金益兼)으로, 종조부인 신독재 김집의 문하생인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다. 김진규의 자는 달포(達甫)이고 호는 죽천(竹泉)이며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1682년 진사시에 수석 합격하였고 1686년 정시문과에 갑과 급제하였다. 이조좌랑(吏曹佐郎) 재직 중,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거제도에 귀양갔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지평(持平)에 기용되었다. 이듬해 소론 남구만(南九萬)으로부터 척신으로서 월권행위가 많다는 탄핵으로 삭직되었다. 1699년 동부승지(同副承旨)로서, 송시열을 배반한 윤증(尹拯)을 공박하여 소론과 대립하였다. 대사성, 이조참판을 거쳐, 1706년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소론의 집권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1710년 대제학을 지내고 공조판서를 거쳐, 1713년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문장에 뛰어났고 전서, 예서와 산수화, 인물화에 모두 능하였다. 거제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 배향되었다.¹¹⁾

김진규는 1705년(숙종31) 임금의 즉위 30주년 존호(尊號)를 올리는 진하(陳賀)와 진연(進宴)을 반대하는 죽천의 상소는 소론의 공격을 받았다. 죽천은 역대 임금중에 역년(歷年)의 오래됨으로 존호를 올린 적이 없다는 것과 백성이 곤궁하여 어려울 때 연회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빈궁이 부상(父喪) 중인데 여악(女樂)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반대 상소를 올렸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원칙주의자였던 죽천은 주변의 권유도 듣지 않고 반대상소를 올렸고 조태일(趙泰一, 1665~1707)의 소척(疏斥)으로 끝내 충청도 덕산(德山)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이것이 김진규의 두 번째 유배로, 병조참판에 오른 직후인 49세(1706년, 숙종32)였다. 김진규는 충청도 덕산에 유배되었다가 51세(1708년, 숙종34) 1월에 임금의 특명으로 석방되어 고향인 광주(廣州) 선릉(先壇)으로 돌아갔다가 모친의 위중한 병환에 있어 노량(露梁)과 연서

11) 네이버 「두산백과」 참조



(延曙) 등 지역에서 거주한 시기이다. 거제도 유배가 서인과 남인의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면, 덕산 유배는 소론과 노론의 당쟁 속에서 조태일의 소척(疏斥)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거리로 보아도 거제도보다 가까운 덕산으로의 유배는 심리적으로 덜 외로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배생활 동안 친구 이이명이 찾아와 같이 밤을 지낸 적도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는 덕산에 있으면서 「역경(易經)」을 읽는 데 마음을 두었고 여러 선유의 말을 더욱 가까이 하였다. 후에 또 구준(丘濬)이 편찬한 「주자학적(朱子學的)」을 얻어서 항상 책상에 놓고 보았다. 이처럼 김진규의 제2 유배기(流配期)는 혼란한 당쟁의 현실에서 벗어나 경전을 읽으면서 내면을 수양하고 학문을 닦는 시기였다.¹²⁾

김진규는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그로 인한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자연스럽게 명산대천을 찾게 되었는데, 가야산은 곧 배소에서 가장 가까운 명산이었다. 김진규는 그 당시 가야산의 가야구곡 중 석문담, 와룡담, 옥병계를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여 명칭을 정하고 그 곳을 수시로 찾아 풍광을 완상하며 시문을 창작하였다. 석문담은 가야골 북쪽 후미진 곳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마침 김진규가 찾아 그곳의 이름을 석문담으로 확정하였다. 김진규가 석문담을 찾아 그 명칭을 정하기 이전에는 석문담은 마담(馬潭)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 석문담이라 했다. 석문담이 이전에 마담(馬潭)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 연못 속에 용마(龍馬)가 살고 있으므로 이름을 마담(馬潭)이라 했다”¹³⁾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마담을 석문담으로 고쳐 명명하게 된 것은 이태백의 시 「금사담(金沙潭)」과 연관이 깊다. 즉 김진규는 이태백의 시구 “석문에서 물을 뿜어 평사에 연못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그 이름을 취해 석문담이라 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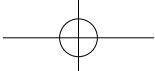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김진규가 옥병계라 명명하기 이전에 옥병계는 기암(妓巖)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 옥병계라 하였다.¹⁵⁾ 그런데 옥병계가 기암(妓巖)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덕산현의 관기가 실수로 이 절벽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었

12) 김선희, 「죽천 김진규의 거제유배문학 연구」, 경상대학 석사논문, 2015, 13-14쪽

13) 김육, 「잡곡유고」권14, 「天聖日錄」, “此中有龍馬, 故名馬潭”

14) 金鎮圭, 「竹泉集」권5, 「石門潭」, “潭在伽倻洞北僻處, 邑人罕有知者, 適余搜得, 卽馬潭, 余改今號, 盖取太白詩石門噴作平沙潭之語”

15) 金鎮圭, 「竹泉集」권5, 「遊玉屏溪」, “舊名妓巖, 余改此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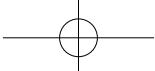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기에 기암(妓巖)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진규는 석문담, 와룡담, 옥병계라는 글자를 암각해 놓았다. 또 석문담에는 우암 송시열이 취석(醉石)이란 글자를 새겨 놓았다.

윤봉구(1683~1768)는 자는 서옹(瑞膺), 호는 병계(屏溪) 또는 구암(久菴)이며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저서로 『병계집』이 있다. 윤봉구는 윤유건(尹惟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판 윤비경(尹飛卿)이다. 아버지는 윤명운(尹明運)이며, 어머니는 이경창(李慶昌)의 딸이다. 우참찬 윤봉오(尹鳳五)의 형이다. 1714년(숙종40) 진사가 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725년(영조1) 청도군수가 되었다. 1733년 사헌부지평, 이듬해 장령(掌令)이 되었고, 1739년 집의(執義)에 이르렀다. 1741년 부호군이 되었을 때 주자(朱子)를 보은춘추사(春秋祠)의 송시열(宋時烈) 영당에 추봉할 것을 주장하다가 삭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군자감정이 되었다. 1743년 사과, 1749년 진선, 1754년 서연관(書筵官), 이듬 해 찬선을 거쳐 1760년 대사헌에 특별 임명되었으며, 1763년 지돈녕(知敦寧)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한원진(韓元震)·이간(李東)·현상벽(玄尙璧)·채지홍(蔡之洪), 이이근, 한홍조, 성만진 등과 더불어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중심 인물로 꼽힌다. 호락논의 분파는 이간과 한원진에게서 심화되어 심성론(心性論)의 한 줄기를 형성한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서로 같다는 이간의 학설은 뒤에 이재(李緯)와 박필주(朴弼周)에 이어져 '낙론(洛論)'이라 불리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윤봉구와 최징후(崔徵厚)로 연결되어 '호론(湖論)'으로 지칭되었다.

윤봉구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되는 천리(天理)는 동일하나, 일단 만물이 형성된 뒤 부여된 이(理), 즉 성(性)은 만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봉구의 생애는 사회적·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立論)에 치중했으며, 저술의 내용도 경전의 강의나 주석 및 성리설이 주를 이룬다.

윤봉구의 선대는 가야산 자락에 세거하였으며 가야산은 윤봉구의 문중 산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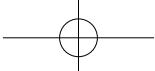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윤봉구는 옥병계(이곡) 아래에 집을 짓고 그 골의 주인이 되어 그 사이의 조약돌, 굽이 쳐 흐르는 물, 아침노을, 저녁 구름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완상하며 심신을 연마하였다.¹⁶⁾ 그 이후 흥선 대원군이 남연군묘를 가야동에 쓰면서 윤봉구는 공주시 유구면 탑곡리와 명곡리 일대 산지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윤봉구의 묘는 예산군 봉산면 궁평리에 있다.

이처럼 김진규와 윤봉구 형제는 유배라는 상황의 우연성 및 세거지지(世居之地)라는 지역적 기반으로 인해 가야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여건만으로 그들이 구곡을 경영하고 그와 관련한 시문을 창작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진규와 윤봉구 형제는 왜 가야구곡을 경영하고 그와 관련한 시문을 창작했을까. 이는 곧 주자의 무이도가와 관련이 깊다. 윤봉구는 그의 「가야구곡 차무이구곡운(伽倻九曲 次 武夷九曲韻)」 병서(並序)에서 규지할 수 있듯이 가야구곡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차운하여 창작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주자의 <무이도가>는 무이산의 무이구곡을 대상으로 지어진 도가(懌歌), 즉 뱃노래이다. 주자는 1183년 송안현 서남 무이산 아래에 무이정사를 짓고 본격적으로 강학과 은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이구곡을 경영하고, 다음 해 <무이도가>를 지었다. 그러한 까닭에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 또 한 물길 아홉 굽이를 유람하는 어부로 설정된다. 또한 이 작품은 구곡의 승경을 서시(序詩)와 함께 1곡에서부터 9곡까지, 각 1수씩의 칠언절구(七言絕句)로 노래하여 모두 10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이도가>의 내용적 특징은 구곡을 중심 소재로 삼아 각 곡의 승경을 어부의 유람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과 칠언절구 10수의 연작시라는 형식적 특징이 작품의 내적 특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이도가>를 효방한 조선조 구곡가 또한 이러한 <무이도가>의 특질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다.¹⁷⁾ 그렇기에 조선조의 구곡가는 주자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 조선조 구곡문화는 조선조 사회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구곡문화를 향유했던 계층들은 대부분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조 사회의 지배층으로 위치하면서 사회와 문화를 선

16) 윤봉구, 앞의 글, 같은 곳
17) 조유영, 앞의 논문, 12쪽



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층의 문화로서 구곡문화를 바라 볼 필요가 발생한다. 구곡가 또한 성리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조선조 사대부 계층의 사회·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구곡가를 창작하고 향유하고자 한 것은 그들이 가졌던 성리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기반으로 그들의 계급적 위치를 공고히 하거나, 또 다른 영향력을 형성하면서 조선조 사회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곡문화를 향유했던 조선조 사대부 계층 또한 고정된 계층으로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사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내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¹⁸⁾ 가야구곡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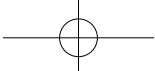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그런데 주자의 무이정사 및 무이구곡 경영에서 보여주는 산수는 단순히 속세와 단절된 탈속적 공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산수를 매개로 ‘천리(天理)’의 유행 발현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이법(理法)과 인성(人性)의 본질을 탐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자가 경영했던 무이정사를 포함한 무이산은 이후 주자 학문의 본산(本山) 이자 성소(聖所)로 인식되었고, 그의 무이구곡 경영은 유자(儒者)로서의 삶의 전범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많은 후대 문인들에 의해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가 지어졌으며, 元대 이후로는 후학들에 의해 <고곡도(九曲圖)>가 제작되고, 이와 함께 <무이산지(武夷山志)>류(類)의 서적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 조선조 사대부들은 주자의 무이정사 및 무이구곡 경영을 효방하여 조선조 구곡문화를 꽂피웠다. 따라서 성리학의 산수 인식을 토대로 주자에 의해 이루어진 구곡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¹⁹⁾ 그렇기에 가야구곡 또한 이러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가야구곡의 시문학적 형상

가야구곡은 지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곳이 아닌 후미지고 깊숙

18) 조유영, 앞의 논문,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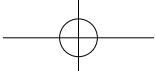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19) 조유영, 앞의 논문, 26-27쪽



한 곳이다. 그렇기에 윤봉구는 이를 땅이 숨기고 하늘이 감추어 둔 지 몇 천 백년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풀과 나무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내어 그 이름을 짓고 순서를 확정하여 그에 대한 구곡시를 창작한 것은 단순히 세월을 기다렸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가야구곡을 경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자신의 노력보다는 그러한 승경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하나의 사명과도 같은 알 수 없는 인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윤봉구는 그곳에 명칭과 순서를 정하고 평소 그곳에 노닐면서 그와 관련한 가야구곡시를 지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침랑 강성서가 주자의 <무이도가>의 운을 사용하여 가야구곡을 짓고 윤봉구에게 편지를 보내 그 작품을 보여 주고, 그에 대한 화답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강성서가 보내온 가야구곡시에는 구곡의 칭호와 순서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이에 윤봉구는 이를 바로 잡아 가야구곡의 명칭과 차례에 따라 가야구곡시를 창작하였다.

구곡도가 구곡원림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곡시가는 언어를 통해 구곡원림에 대한 그들의 공간적 상상력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무이도가 차운시는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 첫째로는 주자의 무이산 은거와 관련된 여러 문헌 기록과 「무이지」류의 서적을 통해 인지하게 된 주자의 무이정사 은거를 자신만의 감성과 상상력에 의지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이러한 차운시들은 비록 무이구곡의 실경을 직접 보고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선조 사대부들이 가졌던 주자와 무이구곡에 대한 개별적 인식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는 <무이도가>의 운(韻)을 빌리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경영한 구곡원림을 대상으로 구곡시를 창작한 경우도 많이 있다. 셋째는 무이도가의 운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구곡원림이 아닌 선현(先賢)의 구곡원림을 대상으로 구곡시를 창작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퇴계의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설정된 도산구곡을 배경으로 퇴계의 후손과 후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여러 무이도가 차운 구곡시들이 그러하며, 송시열의 화양구곡을 대상으로 서인 노론계열 후대 문인들이 창작한 구곡시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구곡시를 보고 이를 재차운(再次韻)하여 지은 구곡시도 다수

20) 조유영, 앞의 논문,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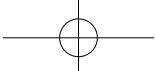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존재한다. 다섯째는 무이도가를 차운하기는 하였지만 율곡의 <고산구곡가>와 같은 국문 구곡가의 시상을 반영하여 창작한 작품들도 있다. 이 밖에 <고산구곡가>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와 같은 국문 구곡가를 한역(漢譯)한 구곡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송시열의 <고산구곡가시(高山九曲歌詩)>, 권섭의 <번율옹고산고곡가용무이도가운(翻栗翁高山九曲歌用武夷櫂歌韻)>, <황강구곡용무이도가운번소영가곡(黃江九曲用武夷櫂歌韻翻所詠歌曲)> 등이 그것이다.²¹⁾ 이렇게 볼 때, 윤봉구의 가야구곡시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윤봉구의 가야구곡시의 원제명은 「가야구곡차무이구곡운(伽倻九曲次武夷九曲韻)」으로, 주자의 <무이구곡시>를 차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자의 무이도가는 「도가시주(棹歌詩註)」와 같은 비평서들이 유입되면서 무이도가에 대한 비평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평 담론에는 무이도가를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물기흥(人物起興)의 서경시(敍景詩)로 볼 것인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였다. 이러한 무이도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부상하게 된 이유는 주자가 가진 위상과 16세기 사람들이 공유했던 성리학적 미의식에 의해 무이도가는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문학의 전범이 되었기 때문이다.²²⁾ 포서 조익(1579-1655)은 다음과 같이 무이도가를 입도차제의 조도시로 해석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지도 않은 채 주자(朱子)의 무이구곡 시를 나름대로 해설해 본 적이 있었다. 이는 유씨(劉氏)의 주석을 근거로 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을 내가 다시 자세히 언급해 본 것인데, 이에 대한 시비(是非)를 질정(質正)할 기회가 없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런데 최근에 퇴계와 고봉이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에 대해서 논한 글을 얻어서 읽어 보고는,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유씨의 주석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퇴계는 의심을 하였으며, 고봉은 곧장 배척하였다. 선배들의 견해가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

21) 조유영, 앞의 논문, 55-56쪽

22) 조유영, 앞의 논문,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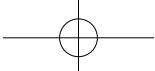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고봉이 논한 것을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기에, 여기에 의혹되는 바를 기록해 놓고서 이에 대해 잘 아는 자를 기다려 바로잡을까 한다.

내가 나름대로 이 시를 살펴보건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자가 자신의 뜻을 사물에 붙여서 드러낸 내용 아닌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학문의 공부에 비유하면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렇다면 유씨의 주석을 비난할 것이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대저 이 시의 제목 아래에 주자가 자제(自題)하기를 “장난으로 이 시를 지어서 함께 노리는 벗들에게 보여 주며 서로들 한번 웃었다.”고 하였다. 만약 주자가 자신의 뜻을 붙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장난으로 지었다고 했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서로들 웃었다고 하였겠는가. 예로부터 시인들이 산수(山水)를 노래한 것이 많기도 하지만, 장난으로 그 시를 지어서 서로 웃었다고 시인 자신이 말한 것을 언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보면 주자가 자기의 뜻을 이 시에 붙인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 시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²³⁾

조익은 유개(劉熙)의 「도가시주(棹歌詩註)」²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자신의 견해로 보강했는데, 그에 대한 시비의 질정으로 고민하던 중에 퇴계, 고봉, 하서의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주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조익은 김인후는 「도가시주」의 주석에 따라 무이도가를 입도차제의 조도시로 보았다고 하고, 반면에 퇴계는 「도가시주」의 주석을 의심하였으며, 나아가 고봉은 배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가 퇴계와 고봉의 관점보다는 「도가시주」의 주석을 수용한 하서의 시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김인후와

23) 趙翼, 「浦渚集」권22「雜著」, 〈讀退溪高峯論武夷詩書〉, : “翼嘗竊不自揆, 解朱子武夷九曲詩, 蓋因劉氏註, 而又致詳於其所未及者, 恨無可正其是非也, 近得退溪, 高峯往復書論此詩者讀之, 私心竊深惑焉, 蓋河西於劉註, 無間然, 退溪有疑焉, 高峯直詆斥之, 不知先輩所見何如是逕庭, 而高峯之論, 尤所不可曉也, 兹錄其所惑, 以俟知者正之也, 竊見此詩, 始終無非有所托意, 比之學問工夫, 無不吻合, 劉氏註何可非也, 夫此詩題下, 朱子自題云, 戲作呈諸友遊, 相與一笑, 若非寓意, 何故謂戲作, 何故相笑乎, 自古詩人詠山水者, 多矣, 何嘗見自謂戲作而相笑者乎, 此可見其寓意無疑矣”

24) 16세기부터 조선조 사람들에게 널리 수용되어 광범위하게 일헌 「도가시주」는 진보(陳普 1244-1315)의 주해본인데, 진보의 주해본은 유개가 간행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개의 「도가시주」로 알려져 있었다. 심경호, 「포저 조익의 문학관과 문학」, 「한국실학연구」 14, 2007, 조유영, 앞의 논문, 57-58에서 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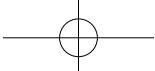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조익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람들은 「도가시주」 등을 근거로 주자의 본의(本意)가 입도차제의 조도시에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작품에도 이러한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즉 조익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자가 자신의 뜻을 사물에 붙여서 드러낸 내용 아닌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학문의 공부에 비유하면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입도차체의 조도시라 확인하였다.

반면에 퇴계와 고봉은 〈무이도가〉를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서경시(敍景詩)로 이해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일정부분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봉이 조도시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한 것과는 달리, 퇴계는 주자의 본의가 서경을 노래한 산수시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시를 완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무이도가를 입도차제의 조도시로도 읽을 수 있음을 함께 긍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자의 본의는 결국 자연 경물의 묘사에 있었지만 작품을 대하는 독자는 자신이 가진 재도적인 입장에서 감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리학의 묘리를 깨달을 수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탁흥우의(托興寓意)’의 ‘회통적 시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도가시주」의 주의(註意)에 입각하여 창작한 〈한거독무이지차구곡도가운십수(閑居讀武夷志次九曲懽歌韻十首)〉를 이러한 비평적 관점 속에서 수정하여 제9곡시를 다시 지어 구곡시 창작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후 이러한 퇴계의 무이도가 비평의식은 퇴계학파의 구곡시 창작에 적극적으로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이에 비하여 율곡 이이는 단순히 산수의 외면만을 즐기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고, 심미 대상인 산수와 감상 주체인 인간의 내면을 통합하여야만 산수를 즐기는 진정한 태도임을 강조한다. 이는 결국 외물의 아름다움만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산수경물과 인간의 합일을 천리(天理)라는 보편자를 통해 이룩함으로써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율곡은 이러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수양론적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관념적 산수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유는 16세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25) 조유영, 앞의 논문, 57~58쪽



가졌던 성리학적 산수관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미의식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이상적인 산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무이도가를 산수시의 전범으로 자리 잡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²⁶⁾

윤봉구의 가야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와 같이 서시인 가야산을 포함하여 제1곡에서 제9곡까지 모두 10수로 되어 있다. 제1곡인 ‘관어대’로부터 제9곡 ‘옥량포’까지는 대략 십 여리가 좀 넘는다.²⁷⁾ 서시에 해당하는 ‘가야산’부터 제9곡까지 작품의 순서에 따라 주자의 무이도가와 대비하여 그 시문학적 형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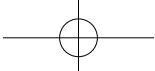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伽倻秀氣炳三靈(가야수기병삼령) 가야산 빼어난 기운 해 달 별처럼 빛나고
一道巖泉九曲清(일도암천구곡청) 한 줄기 바위 샘 아홉 구비에 맑네
鬼護神呵千載祕(귀호신가천재비) 귀신이 보우하여 천 년 동안 숨겨져 왔는데
淙然和我膝琴聲(종연화아칠금성) 흐르는 물소리 내 무릎 위 거문고 소리와 어울리네

武夷山上有仙靈(무이산상유선령) 무이산 위에 신선의 영혼 있고
山下寒流曲曲清(산하한류곡곡청) 산 아래 차가운 물 굽이굽이 맑네
欲識箇中奇絕處(욕식개중기절처) 그 중에 절경을 알고 싶다면
櫂歌閒聽兩三聲(도가한청양삼성) 뱃노래 두 세 곡 한가로이 들어보오

앞에 예시(例詩)는 가야구곡의 서시로, 가야구곡 전체를 포괄하는 ‘가야산’이 시제(詩題)이다. 그리고 다음에 인용한 작품은 주자의 <무이도가> 10수 가운데 서시에 해당되는 첫 번째 작품이다. 앞서 인용한 윤봉구의 가야구곡시는 주자의 이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지은 작품으로, 그 운자는 영(靈), 청(清), 성(聲)으로 동일하다. 기구(起句)에서 가야구곡시는 무이산상 대신 가야산의 빼어난 기운으로 그 공간적 위치가 자연스

26) 조유영, 앞의 논문,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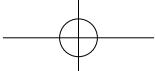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27) 尹鳳九, 「屏溪集」권1, 「伽倻九曲次武夷九曲韻」並序, :“地闊天慳, 幾千百年, 而今我得之於草樹掩翳之中, 闡而名之, 備數於九曲之終, 此豈非有待而然者耶, …今因聖瑞之賦九曲, 而略書九曲之次第名稱, 仍及其或淵或瀑或崖或臺, 而幽深間雅, 奇壯淺奧, 莫不題品, 使諸君子之賡聖瑞者, 以知九曲之名實大略云”



럽게 치환되면서 뒤에 이어지는 선령 대신 삼령(해, 달, 별)처럼 빛난다고 하여 가야산이 승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승구(承句)에서는 산하한류(山下寒流)가 가야구곡시에서는 한 줄기 바위 샘으로 그 지형적 특성에 맞게 바뀌고 곡곡청이 구곡청으로 전환되어 일곡에서 구곡에 이르기까지 맑다고 하여 그 샘물이 맑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무이도가의 전구(轉句)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절경을 암시하면서 결구로 이어지는데 비하여 가야구곡시에서는 가야구곡의 풍광이 그동안 오랫동안 숨겨져 왔는데 이는 귀신의 보호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구(結句)에서는 무이도가가 도가(棹歌) 즉 뱃노래이기에 여유롭게 뱃놀이하는 정경과 그와 연관된 뱃노래인 무이도가를 들어보라고 했는데 비하여 가야구곡시에서 시적 자아는 배를 타고 고요히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야구곡시에서는 그 흐르는 물소리에 주목하여 자신이 무릎 위에서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와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의은 다음과 같이 주자의 무이도가 서시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산상(山上)의 선령(仙靈)은 도(道)의 본원(本原)이 하늘에서 나온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산하한류곡곡청(山下寒流曲曲淸)은 이 도의 근원이 깊고 흐름이 멀어서 곳곳마다 모두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것이다. 곡곡(曲曲)은 아래에 나오는 구곡(九曲)을 가리킨다. 개중기절처(箇中奇絕處)는 굽이마다 모두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뱃노래 두세 가락이란 아래에 나오는 9수(首)의 시를 가리키니, 아래의 9수에서 아름다운 그 경치를 표현해 내었다는 말이다. 장차 아래의 9수를 지으려 하면서 먼저 이 말을 꺼내었으니, 이것은 곧 총서(總序)에 해당한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이 지역은 그윽하고 깊숙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노니는 일이 드물기만 하다. 그런데 그 속의 산과 물의 경치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기이해지다가, 계곡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서는 또 문득 평탄하고 널찍한 공간이 활짝 열려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도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비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자(朱子)가 이 10수의 시를 지어 산수(山



水)에 흥을 붙이면서 비유한 것이니, 아래의 9수는 도를 향해 나아가는 순서를 말한 것이고, 이 1수는 총서 격으로 맨 앞에 내놓은 것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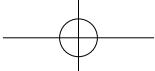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조익은 서시의 내용이 도의 근원이 깊고 흐름이 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무이산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의 풍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산수에 흥을 붙여 비유한 것은 곧 도를 향해 나아가는 순서를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야구곡시에서는 가야산에 숨겨져 있는 가야구곡의 아름다운 산수의 풍광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특별한 언외지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一曲武夷上釣船(일곡무이상조선)	일곡이라 무이에서 낚싯배에 오르니
休言此曲只沙川(휴언차곡지사천)	이 굽이를 모래내라 말하지 마오
魚臺已見西峯色(어대이현서봉색)	어대를 보고 나니 서쪽 봉우리 색이 짙어가
秀氣蒼然鎖暮烟(수기창연쇄모연)	어둑한 빼어난 기운 저녁 안개에 잠겨 있네

一曲溪邊上釣船(일곡계변상조선)	일곡이라 시냇가에서 낚시 배에 오르니
幔亭峰影蘸晴川(만정봉영잠청천)	만정봉 그림자 맑은 시내에 잠겨 있네
虹橋一斷無消息(홍교일단무소식)	홍교 한 번 끊어진 뒤 소식이 없으니
萬壑千巖鎖翠煙(만학천암쇄취연)	만학천암이 푸른 안개에 잠겨 있네

가야구곡시의 제1곡은 관어대이다. 가야산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돌고 동쪽으로 한 동부(洞府)(신선이 사는 곳)가 열려 있고 하나의 물줄기가 중간에 구불구불 이어져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흐른다. 일곡은 관어대로 골 입구 청풍산 서쪽에 있다. 그런데 관어대와 탁석천은 본래 길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관어

28) 趙翼, 「浦渚集」권22, 雜著「武夷櫂歌十首解」, :“山上仙靈, 恐是喻道之本原出於天者也, 山下寒流曲曲清喻此道源流深遠, 處處皆美也, 曲曲指下九曲, 箇中奇絕處, 言曲曲皆有美景也, 櫂歌兩三聲, 指下九首之詩也, 言下九首說出其美景也, 將爲下九首, 而先以此發之, 卽總序也, 翡意此地幽邃, 人所罕遊, 其中山水愈入愈奇, 而其溪谷盡處, 又却平行開豁, 可取以喻造道之事, 故朱子作此十首, 托興於山水以爲諭, 下九首, 言進道次第, 此首總序以起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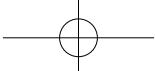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대는 모래가 평평하고 냇물이 넓고 흰 돌이 치아처럼 하얗다. 처음 선동에 들어가면 사람의 눈을 새롭게 할 만하다. 서쪽으로 여러 산봉우리를 바라보면 울창하여 푸른빛을 띠고 있어 이 가야산의 전 모습을 볼 수 있다²⁹⁾ 관어대는 옥계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곳으로, 넓은 개울과 작은 배가 있어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지금은 큰 옥계 저수지에 잠겨 있다. 옥계리 삼거리에는 현종왕 태실비로 가는 길이 있다.³⁰⁾

두 작품 모두 일곡에서 낚시배에 올라 바라 본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가야구곡시에서 윤봉구는 옥계천을 주자의 무이산 계곡이라 직서하여 동일시하고 있다. 비록 옥계천이 주자가 낚시배를 타고노를 저으며 오유했던 무이산 계곡처럼 깊은 곳은 아닐지라도 모래내(沙川)는 아니라고 하여 옥계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한가하고 여유롭게 낚시배에 올라 어대를 바라보고 뒤이어 주변의 산봉우리를 바라본다. 시인의 시야에 들어 온 옥계천 관어대 주변의 풍광은 저녁 안개에 잠겨 빼어나게 아름답다. 가야구곡시는 무이도가에서의 흥교만 없을 뿐, 두 작품 모두 안개에 잠겨 있는 주변의 수려한 풍광을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조익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일곡(一曲)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장차 이 계곡에서 노닐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곳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취해서 초학(初學)에 비유한 것이다. 낚시배에 올라타는 것은 학문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봉영잠청천(峯影蘸晴川)은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보이는 것이 그림자이고 보면, 방불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따름이지 진정으로 보았다고는 꼭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초학자는 본 것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흥교일단무소식(虹橋一斷無消息)은 다리가 끊긴 뒤로 건너간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의 경치를 다시는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만학천암(萬壑千巖)은 아래 이곡(二曲)에서부터 구곡(九

29) 尹鳳九, 「伽倻九曲」, 「屏溪集」권1, 「伽倻九曲 次武夷九曲韻」並序, :“蓋伽倻之山, 自南而北轉, 東開一洞府, 而一水逶迤中間, 自西而向東, 一曲觀魚臺, 在谷口清風山之西…觀魚卓錫, 本在路傍, 人不爲奇, 然觀魚則沙平川廣, 白石齒齒, 初入仙洞, 足可以新人眼目, 而西望羣峯, 鬱然蒼翠, 可見一山全面矣”

30)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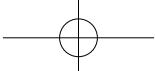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曲)까지의 산수의 승경(勝景)을 가리키고, 쇄취연(鎖翠煙)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말한다. 들어가는 곳의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이 건널 수 없게 되었고 보면, 그 깊숙한 곳의 가경(佳境)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 도(道)가 단절된 것이 오래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첫머리의 문로(門路)를 향할 뜻마저 아직 있지 않다면, 깊이 나아가 고원(高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희망을 어떻게 다시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 도 속에는 즐길 만한 경계가 한없이 많건마는 이를 추구하는 자가 없어서 언제나 텅 비고 적막한 땅으로 버려져 있는 것을 이 시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³¹⁾

조익은 낚시배에 올라타는 행위는 학문의 시작이며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맑은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모양으로, 이는 곧 초학자의 단계이기에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흥교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건널 수 없게 된 것을 뜻하며, 그렇기에 깊숙한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도가 단절된 것이 오래되었음을 비유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익은 흥교 건너 저 너머에는 즐길 만한 풍광이 한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자가 없기에 언제나 텅 비고 적막한 땅으로 버려져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야구곡시에는 이렇게 해석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 그저 가야산 계곡의 옥계천에서 배를 띄우고 맑게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저녁 안개에 가려 흐릿하게 보이는 주변의 빼어난 산수의 풍광을 수묵화를 그리듯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무이도가 역시 가야구곡시와 마찬가지로 서경과 그로 인한 시적 자아의 서정의 발로라고 해석된다.

二曲屏溪環翠峯(이곡병계환취봉) 이곡이라 병계에는 푸른 산봉우리 빙 둘러 있고
蒼崖渾是雲霞容(창애흔시운하용) 푸른 벼랑 구름 안개 뒤섞여 자욱하네
垂竿把酒磯頭望(수간파주기두망) 낚시대 드리운 채 술잔 들고 물가 바위 위 바라보니

31) 조익, 앞의 글,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蘸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鎖翠煙, 一曲, 卽其入處也, 將遊此溪者必自此而入, 故取以譬初學也, 上釣船, 言始爲學也, 峯影蘸晴川, 言始有所見也, 然猶是影子, 則是鬚鬚有見, 而未必是真見也, 蓋初學雖或有見, 難得爲眞的也, 虹橋一斷無消息, 言自橋之斷, 人未有得度者, 故人不復知其中景致也, 萬壑千巖, 指下二曲至九曲山水之勝也, 鎮翠煙, 言其不爲人所見也, 入處橋斷, 人無得度者, 則其深處佳境, 不復有見者矣, 比此道之絕久矣, 初頭門路, 亦未有向意者, 則豈復有能深造而至於高遠之域者哉, 此歎此道中無限可樂境界, 人無求者, 長爲空曠之地也”



玉瀑龍潭隔幾重(옥포용담격기중) 옥포 용담 겹겹이 막혀 있네

二曲亭亭玉女峰(이곡정정옥녀봉) 이곡에 우뚝 솟은 옥녀봉
插花臨水爲誰容(삽화임수위수용) 꽃 꽂고 물에 임해 누구를 위해 단장하나
道人不復陽臺夢(도인불부양대몽) 도인은 다시 양대의 꿈 꾸지 않고
興入前山翠幾重(흥입전산취기중) 흥겹게 앞산에 드니 푸르름 몇 겹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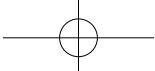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가야구곡의 제2곡은 옥병계(玉屏溪)이다. 옥병계는 수성봉 북쪽에 있는데, 저수지 위쪽의 가야교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덕산천 건너에 있는 봉우리가 수성봉이었던 듯 하다. 「여지도서」에는 옥병계 병풍석 아래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옥병계는 많은 문인 관료들이 즐겨 찾았는데, 수직 바위가 병풍 같아 병풍바위라 했다. 그 바위 아래로 티 없이 맑은 물이 흘러 옥계라고 했다. 옥병계에는 고운 최치원이 글자를 새긴 세이암(洗耳巖)이 있다. 세이라는 글자 옆에 최치원의 호 고운(孤雲)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옥병계는 가야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크게 휘돌아 연못을 이룬 곳이다. 덕산현의 관기가 바위 위에서 놀다가 실수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기암(妓巖)으로도 불린다. 옥병계는 오늘날 옥계 저수지 상류 옥병계 다리 부근인데, 그 곳에는 김진규가 각인한 옥병계라는 글자와 청송 성수침(1493-1564)이 각인한 수재대(水哉臺)라는 글자가 있다.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지만 식당의 길을 내느라 훼손되었다.³²⁾

윤봉구는 옥병계 아래에 집을 짓고 가야골의 주인이 되어 그 사이 조약돌,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 아침노을, 저녁 구름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주희의 무이시(「정사집 영(精舍雜詠)」12중 기(其)1)³³⁾에서 ‘편안하게 나는 물과 돌에 어울려 사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자신의 경우로 치환하여 오유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러한 풍광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을 선현들도 혐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그러한 경지에 물아일체가 된 자신을 합리화한다.³⁴⁾

32)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3~404쪽

33) 주희, 「정사집 영」, “精舍琴畫四十年, 幾作山中客,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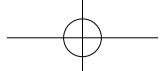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34) 윤봉구, 앞의 글, 같은 곳, “余卜築于玉溪之下, 實爲一洞之主, 而其間片石曲水, 朝霞暮雲, 莫不管領於余, 晦翁之武夷詩曰, 居然我泉石, 其亦余之謂也, 是知在泉石則先贊亦不以物我爲嫌矣”



〈무이도가〉에서 제2곡은 옥녀봉과 그와 관련한 설화가 삽입되어 있고 그 주변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가야구곡시에서는 옥병계 맑은 물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술잔을 기울이며 한가롭고도 여유있게 물가 주변의 바위,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푸른 산봉우리를 완상하는 시적 자아의 심경이 표백되어 있다.

윤봉구는 그의 「동유기행」에서 옥병계에 대해 장편의 오언시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行役既云歇(행역기운헐)	길 떠났다가 돌아 와 쉬고 싶어서
吾方在吾廬(오방재오려)	나는 바야흐로 우리 집에 있네
壇槐漲新緣(단괴창신록)	안뜰의 느티나무 나뭇잎 질푸르리
濃陰滿庭除(농음만정제)	짙은 그늘 뜰 가득 드리웠네
新醅待我饌(신배대아발)	새로 빚은 술 나를 기다려 익어서
一盃襟韻踈(일배금운소)	한 잔 기울이니 마음이 탁 트이네
餘興尙清夢(여흥상청몽)	남은 흥취에 맑은 꿈 여전하고
萬瀑蝶蘧蘧(만폭접거거)	만폭은 나비되어 세차게 흘러내리네
覺來至玉屏(각래지옥병)	옥병계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杖屢臨清渠(장구임청거)	지팡이 짚신으로 맑은 물가에 임하였네
清坐水哉臺(청좌수재대)	수재대에 앉아 있노라니
萬象羅襟虛(만상라금허)	삼라만상이 텅 빈 가슴 속에 펼쳐 있는 듯하네
向來名山水(향래명산수)	그 때는 이름 난 산과 물을 보고
非不驚起余(비불경기여)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지 않은 적이 없었네
一賞不復致(일상불부치)	한 번 완상하고 다시 오지 않았으니
小溪還不如(소계환불여)	작은 시내만 못해서였네
此可興便到(차가흥변도)	여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흥취가 일어
朝夕枕漱餘(조석침수여)	아침저녁으로 틈을 내어 찾아 간다네
流峙但會意(유치단회의)	산천이 마음에 맞으면 그 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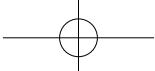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不在大小且(부재대소차)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관계되지 않는다네
元非汗漫意(원비한만의)	애초에 물이 넓은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樂吾溪上居(낙오계상거)	나는 즐겨 시냇가에 산다네
歸來坐整頓(귀래좌정돈)	돌아 와 가지런히 앉아서
聊以讀吾書 ³⁵⁾ (요이독오서)	애오라지 나는 책이나 읽으려네

시인은 행역(行役)을 마치고 가야산 자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봉구는 옥병계에 복거하고 있었다. 3-4구로 보아 계절적 배경은 늦은 봄날이다. 시인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새로 빚은 술을 따라 마시고 도도한 취향에 깊신과 지팡이로 발길은 자연스럽게 어느덧 집 앞의 옥병계에 이른다. 시인은 성수침이 각인해 놓은 수재대에 앉아 옥병계의 세찬 물살을 바라보며 마음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낸다. 시인은 이렇듯 아침저녁으로 이 옥병계를 찾아 와 산수의 풍광을 완상하며 심신을 달랜다.

오원(吳瑗, 1700-1740) 「가야사영(伽倻四詠)」을 노래한 바 있는데, 그 네 곳은 곧 옥병계, 석문담, 와룡담, 옥량폭이다. 다음 작품은 오원의 「가야사영(伽倻四詠)」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인 옥병계이다.

谷口幽事初(곡구유사초)	골짜기 입구에는 애초에 은자의 그윽한 일이 있고
林花鳴好鳥(임화명호조)	숲 속에 꽃 피고 새 울음 듣기 좋네
松疎蔭丹屏(송소음단병)	소나무 드문드문 해 그림자에 바위 붉게 물들고
泠泠清澗繞(영령청간요)	졸졸 물소리 맑은 계곡 휘감아 흐르네
古色濯沙礫(고색탁사역)	고색의 자갈을 씻어내고
天然不嫌小(천연불협소)	천연스레 조금도 싫어하지 아니하네
微湍盪山暉(미단탕산휘)	작은 여울에 산 빛을 씻어내니
夕氣頗窈窕(석기파요조)	저녁 기운 꽈나 그윽하네

35) 윤봉구, 「병계집」권2, 「東遊記行」



跋石不能去(기석불능거) 돌 위 걸어 갈 수 없고
淸磬來雲表³⁶⁾(청경래운표) 맑은 경쇠소리 구름 밖까지 들려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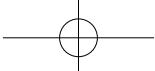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오원의 자는 백옥(伯玉), 호는 월곡(月谷). 오상(吳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오두인(吳斗寅)이고, 아버지는 오진주(吳晋周)이다. 어머니는 예조판서 김창협(金昌協)의 딸이다. 오태주(吳泰周)에게 입양되었다. 이재(李緯)의 처질로,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1723년(경종 3) 사마시에 합격하고, 1728년(영조 4) 정시문과에 장원하여 문명(文名)이 높았다. 사서(司書)로 있을 때 영조에게 학문과 덕을 닦는 요령을 진언(進言)하여 받아들이게 하였고, 직언을 잘 하기로 이름이 났다. 1729년 정언으로 있으면서 탕평책을 적극 반대하다가 한때 삭직되었다. 1732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어 교리(校理)·검토관(檢討官)·이조좌랑·응교(應教)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736년 참찬관(參贊官)으로 민형수(閔亨洙)를 신구(伸救)하려다가 또 파직되었으나 곧 다시 기용되어 1739년 부제학(副提學)이 되고, 승지·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영조에게 당나라 육지(陸贊)가 주의(奏議)한 양세법(兩稅法)의 여섯 가지 폐단을 강의하여 왕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고, 또 성학(聖學)의 긴요한 임무를 조목을 들어 밝히고 성덕(聖德)의 문제와 시정(時政)의 잘되고 못됨 등을 거론하였다.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하였고, 온후(溫厚)하였으며 총명함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문장 또한 깨끗한 절개를 지녔다 하여 진정한 유신(儒臣)이라는 평을 들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월곡집』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³⁷⁾

위에 예시한 작품에서 오원은 자신이 은자가 되어 가야골의 옥병계를 거닐면서 느낀 심회를 표출하고 있다. 옥병계 주변의 가야산의 풍광은 곧 꽂피고 새가 울며 소나무 사이로 해가 넘어가는 일몰의 장관, 시냇물 소리와 함께 밝고 투명하게 어려 있는 조약돌, 그윽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경쇠소리 등이 시각, 청각으로 환기되어 은은하고도 한가로운 정취가 스며들 듯 한다.

김진규는 옥병계의 옛 이름은 기암인데 이를 고쳐 옥병계라 했다고 하며 「유옥병계

36) 吳瑗, 『月谷集』권2 「伽倻四詠」

3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遊玉屏溪)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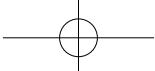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壁立張蒼玉(벽립장창옥)	높은 벼랑 벽처럼 우뚝 서 있어 푸른 옥을 펼쳐 놓은듯하고
溪流遶翠蘿(계류요취라)	시냇물 푸른 비단처럼 감돌아 흐르네
花迎逐臣笑(화영축신소)	꽃은 쫓겨난 신하 웃음으로 맞이해 주고
鳥慰旅人歌(조위여인가)	새들은 나그네 노래하여 위로해 주네
祇要幽憂散(지요유우산)	남모르는 깊은 근심 흩어지기 바랄 뿐이지
非關漫興多(비관만흥다)	산수간의 흥취 많음 관계치 아니하네
却將詩寓意(각장시우의)	시를 지어 내 마음 나타내려
對景一長哦 ³⁸⁾ (대경일장아)	풍광을 마주하여 한 번 길게 읊조리네

옥병계에는 높은 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주위에는 푸른 소나무가 우거져 구슬을 펼쳐 놓은 듯하고 그 아래 계곡에는 푸른 시냇물이 비단처럼 휘돌아 흐른다. 죽천 김진규가 가야산을 찾게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49세 때 덕산에 유배 온 직후이다. 그렇기에 위의 작품에서 시인은 옥병계에서 느낀 감회를 직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즉 시인은 자신을 축신(逐臣)이라 표현하고 이렇게 방축된 자신을 꽃들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고 새들도 노래하여 자신을 위로해 준다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산수를 찾는 이유는 산수에서 느끼는 흥취의 다소와 상관없이 자신의 현재적 근심을 해소하면 그뿐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옥병계를 찾아 산수를 완상하며 이에서 유로되는 심경을 시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의숙(李義肅)은 「가야산기(伽倻山記)」에서 옥병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가야산은 우리 집에서 서쪽 방향으로 3리가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곳에는 산언덕과 기슭이 높이 솟아 있어 계곡을 이루고 있다. 그 계곡은 숲 그늘이 매우 그윽하며 몇 걸음 들어가면 평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자가 사는

38) 金鎮圭, 「竹泉集」권5, 「遊玉屏溪」舊名妓巖, 余改此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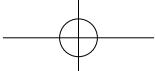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울타리가 깊숙하게 단장되어 운치가 있다. 그 울타리에서 백보 쯤 가면 옥병계에 이른다. 옥병계는 시냇물이 모여서 연못을 이루었다. 절벽을 둘러싸고 흐르는 시내 남쪽에는 그 형세가 깎아지른 듯하고 굽어 돌아 병풍과도 같다. 그 곳에 글자를 옥병계라 새겨 놓았다. 그 위 소나무, 도리개나무, 단풍나무, 벼드나무 떨기가 우거져 아름답다. 바지를 걷고 물을 올라가면 조금 평평하여 누울만하다. 누워서 어린아이가 그물에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바라본다.³⁹⁾

이제 이의숙의 생몰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이의숙은 가야산과 불과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우거하고 있었으며, 옥병계에 은자가 사는 집이 있다고 한 것은 윤봉구가 과거에 한때 복거하던 곳이었던 듯하다. 옥병계는 시냇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병풍과도 같은 바위가 있으며 그 곳에 옥병계가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樹種)의 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답다고 한다. 절벽을 휘감돌아 흐르는 얕으막한 시냇물을 올라가면 그곳에는 누울만한 반석이 있기에 그곳에 누워 물고기를 잡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의숙은 옥병계를 찾아 속기(俗氣)를 씻어내고 물아의 경지에서 오유하고 있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조익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사람이 만약 도를 배우려고 결심하였다면 도에 해를 끼치는 물욕(物欲)을 근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색(女色)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도를 배우는 자로서는 더더욱 이것을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굽이를 학문하는 순서로 말하면 일단 학문의 길에 들어선 단계라고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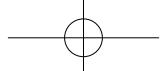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39) 이의숙, 「頤齋集」 권4, 「伽倻山記」, :“離伊山館西弗三里, 岸麓呀然爲衡, 衡有林樾頗幽, 入數喚地, 蓋有隱者宅焉, 屋廬籬落, 靚深有趣, 自籬落往百許武, 至玉屏溪, 溪水蓄以成淵, 壁繞溪之南, 勢如削, 曲輾若屏, 刻書曰玉屏溪, 其上松柳楓檉叢蒨可愛, 揭流登之, 稍平宜卧, 卧看童子網小鱗”



는데, 이때 마침 그곳에 옥녀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해서 비유로 삼은 것이다. 도인불부양대몽(道人不復陽臺夢)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시는 여색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전산취기중(前山翠幾重)은 앞으로 나올 삼곡(三曲)부터 구곡(九曲)까지를 가리킨다. 이는 더이상 여색에 미련을 두지 않음은 물론이고,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좋아하며 지향하는 것은 오직 도에 있다는 말이다. 그의 뜻이 드높고 원대하기 때문에, 형기(形氣)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구한 욕구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떨쳐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대저 남녀의 관계 속에는 인간의 크나큰 욕망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오직 욕망만을 따를 경우에는, 장차 더럽고 비천한 정욕만을 추구한 나머지 금수(禽獸)의 지경으로까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도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만리 멀리 떨어지는 일만 될 뿐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근절해야만 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시가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먼저 경계한 것은, 이것이 해를 끼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만큼 우선 근절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⁴⁰⁾

무이도가의 제2곡은 학문하는 순서로 말하면 일단 학문의 세계에 들어 선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이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여색(女色)으로, 정욕만을 추구한다면 금수의 지경으로 전락할 것이기에 반드시 이를 근절해야만 도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제2곡을 여색에 대한 경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옥녀봉을 통해 비유로 삼은 것이다. 옥녀봉은 양대의 꿈과 관련한 것으로, 양대(陽臺)의 꿈은 전국 시대 초(楚) 나라 시인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에 나오는 고사이다. 초(楚) 나라 회왕(懷王)이 꿈속에서 무산(巫山)의 신녀(神女)를 만나 하룻밤의 인연을 맺고서 서로 작별할 적에, 그 신녀가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를 내리면서 언제까지나 양대 아래에 있겠다.[단위조운(旦爲朝雲) 모위행우(暮爲行雨) 조조모

40) 조익, 앞의 글: “人苟以學道爲事, 則當屏絕物欲之害於道者, 而女色之害爲尤甚, 故學道者尤深戒之也, 此曲以爲學次第言之, 則在既學之後, 而適其地有玉女峯, 故取以爲喻。道人不復陽臺夢, 言學道之人, 不復留情於女色也, 前山翠幾重, 指前三曲至九曲也, 言不復留情於女色, 而其心之所慕悅, 唯在於道也, 蓋其志在高遠, 故區區形氣之欲, 不復爲累而能擺脫之也。夫男女, 人之大欲存焉, 苛不能制而唯欲是循焉, 則將究於汚賤, 至入於禽獸矣, 其於學道, 奚啻萬里之遠哉, 故必絕此而後可以爲道矣, 此詩於爲學之始, 卽先以此爲戒, 以其爲害最深而宜先屏絕之也”



모(朝朝暮暮) 양대지하(陽臺之下)⁴¹⁾]"고 말했다는 기록에서 유래한다. 남녀 관계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은 정욕이다. 그렇기에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여색에 대한 경계라고 한다.

하지만, 조선조에 옥병계를 노래한 시인과 그들의 작품에는 조의이 주장한 바의 여색에 대한 경계로 해석할 만한 시구나 비유적인 언표는 찾기 어렵다. 옥병계와 그 주변 풍광 속에서 오유하면서 당시 일울했던 심경을 치유하거나 속기를 씻어내는 마음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가야구곡을 노래한 시인과 그들의 작품은 <무이도가>를 차운한 것과 별개로 그 내용 및 주제적 성격에는 입도차제의 조도시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작품은 서경을 통한 시적 자아의 심경의 표출이 주를 이루는 서정시이다.

다음에는 제3곡을 살펴보기로 한다.

三曲雲泉弄玉船(삼곡운천룡옥선) 삼곡이라 습운천에서 배를 띄우고

弟兄遊賞憶當年(제형유상억당년) 형 동생 놀던 그 시절 생각나네

泠然小瀑尤奇勝(영연소폭우기승) 맑게 내리 쏟는 폭포소리 더욱 장관이고

潤綠巖紅正可憐(간록암홍정가련) 시내는 푸르고 바위 붉으니 더욱 아름답네

三曲君看架壑船(삼곡군간가학선) 삼곡이라 그대는 가학선 보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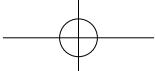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不知停櫂幾何年(부지정도기하년) 노 멈춘 지 몇 년인지 모르겠네

桑田海水今如許(상전해수금여허) 변화무쌍한 세월 이와 같으니

泡沫風燈敢自憐(포말풍등감자련) 물거품 바람 앞 등불 뭐 슬퍼할 것 있나

앞의 예시(例詩)는 윤봉구의 가야구곡 제3곡인 습운천(濕雲泉)이고 다음의 작품은 주자의 <무이도가> 제3곡이다. 습운천은 옥병계 위 방향으로 조금 북쪽에 있는데 조그만 시내가 동북으로 흘러 병계로 들어간다. 습운천의 작은 폭포에 이르면 맑고 차가워

41) 「文選」권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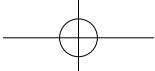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꽃이 비치는 구비에 여러 바위가 잡혀 있다.⁴²⁾ 오늘날 습운천은 동북쪽의 깊은 골짜기 물이 덕산천에 합류하는 지점으로, 가야교 건너 덕산천을 따라 둑길을 가다 보면 하천이 산 밑으로 불는 곳이다. 습운천은 가얏골 물에 쓸려온 토사가 쌓이고 중선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해지는 곳으로, 습지가 만들어져 늘 신비로운 구름이 덮혀 있다. 옥병계에서 옥천계를 따라 1000미터 정도를 걸어야 한다.⁴³⁾

윤봉구는 습운천에서 형 동생과 함께 배를 띠우고 노닐던 젊은 날을 그리워하고 있다. 습운천에서 뿐어 내리는 폭포소리와 맑고 푸른 시냇물, 그 주변의 녹음 및 단풍에 물든 바위 등 수려한 풍광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로 환기하고 있다. 윤봉구는 주자의 <무이도가>와 동일한 운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이도가>와는 다른 심상을 노래하고 있다. <무이도가>에서는 오랫동안 운행을 멈춘 가학선을 등장시켜 변화무쌍한 세월과 그에서 환기되는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조익은 이를 「도가시주(棹歌詩註)」의 “물거품 같고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인생을 감히 스스로 아끼랴(포말풍 등감자련(泡沫風燈敢自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산수를 노래한 시에 있어야 할 내용이겠는가라 하면서 조도시로 해석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조익의 견해를 주목하기로 한다.

가학선(架壑船)은, 옛적에 큰물이 저서 배가 높은 곳까지 떠밀려 올라왔다가 물이 빠진 뒤에 그대로 땅에 벼려진 채 오랜 세월 낡고 썩은 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마침 이 굽이에 그런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뽕나무 밭과 바닷물의 말을 꺼낸 것이다. 이것은 즉 창해(滄海)처럼 큰 것도 오히려 변천하는 법인데, 더군다나 인생이란 허무해서 물거품과 같고 바람 앞의 등불과 같으니 어떻게 이를 변치 않는 영원한 것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포말(泡沫)은 물 위에 뜬 거품이니, 바람 속의 등불과 함께 모두가 없어지기 쉬운 물건이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사욕(私欲)을 채우려고만 한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부귀를 한껏 누려 보려고 추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별별

42) 윤봉구, 「伽倻九曲 次武夷九曲韻」並序, “三曲濕雲泉, 在玉屏向上少北, 小澗之自東北入於屏溪者也…至於濕雲之小瀑清冷, 嘴花之曲渟層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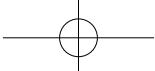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43)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4쪽



죄악을 범하곤 하는데, 이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어야만 외물(外物)을 가볍게 보면서 도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포말과 풍등(風燈)은 불가(佛家)의 용어이다. 이것이 비록 불가의 용어이긴 하나, 외물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는 데에는 참으로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주자가 차용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유자(儒者)의 학문에 있어서는 무아(無我)의 뜻과 서로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바람 속의 등불과 같아서 장구히 지속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외물을 구하는 일은 자연히 하지 않게 될 것이요, 길이 부귀를 누릴 계책을 꾸미지도 않을 것이니, 이렇게 해서 도를 추구하는 공부가 반드시 전일(專一)하게 될 것이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세간의 온갖 일은 잠깐 사이에 변화하여 없어지는 것인 만큼 진력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오직 죽을 때까지 치지하고 역행하고 수신하는 이것이야말로 구경법이라고 하겠다.[세간만사(世間萬事) 수유변멸(須臾變滅) 무족위진력자(無足爲盡力者) 유유치지역행수신사사(唯有致知力行修身俟死) 시위구경법이(是爲究竟法耳)”고 한 것도 바로 이 뜻인데, 도를 배우는 자들은 이 점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가학선, 상전(桑田), 해수(海水) 등을 열거하여 창해(蒼海)처럼 큰 것도 변천하는데 인생이란 물거품과 같고 바람 앞의 등불 같으니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욕에 얹매어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된다. 그렇기에 인간은 외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도에 가깝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를 추구하는 공부가 전일하게 되어 세간의 온갖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힘써 수신에 진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도자(學道者)는 이를 명심해야 된다고 한다.

44) 조의, 앞의 글, “架壑船, 想古時大水, 舟泛至高處, 水落仍委於地, 歲久朽敗也, 適此曲有此, 故因而有桑田海水之語, 言滄海之大, 猶有變遷, 惡人生虛浮, 如泡沫風燈, 其可恃以爲固乎, 泡沫, 水上浮漚也, 與風中燈火, 皆是易滅之物也, 人唯自私其己, 故常欲窮極富貴, 營求不止, 至於種種罪惡, 皆生於私己之欲也, 故人必不自私己, 乃能輕外物而於道爲近也, 泡沫風燈, 佛家語也, 此雖佛家語, 於捐去物累, 誠是有力, 故朱子借用之, 此在吾儒之學, 則與無我之意相近, 人能知此身如泡沫風燈, 非長久之物, 則自不爲外物之求矣, 亦不爲長享富貴之計矣, 其求道之功必專矣, 朱子嘗云, 世間萬事, 須臾變滅, 無足爲盡力者, 唯有致知力行修身俟死, 是爲究竟法耳, 亦此意也, 學道者宜深察之”



가야구곡의 사곡은 석문담으로, 습운천에서 조금 서쪽 중선동 북쪽에 있다.⁴⁵⁾ 기이하게 생긴 바위 한 쌍이 서 있는데, 시냇물이 깊은 웅덩이를 이뤘다고 한다. 이의숙은 「가야산기」에서 석문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옥병계에서 사백 걸음을 가면 석문담에 이른다. 석문담에는 돌이 울퉁불퉁 넓게 늘어 놓여 있어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다. 혹은 소 구유 같기도 하고 혹은 탑 같기도 하고 혹은 절구 같기도 하며 부엌 같기도 하고 바둑판 같기도 하다. 양쪽 가에 높이 빼죽이 솟은 것은 문과 같은데 거기에 석문담이라고 새겨 있다. 물은 어귀에서부터 세차게 흘러 내려가 움푹 패여 연못이 되었다. 물이 맑아 물 밑이 보일 정도이다. 석문담에서 사리를 가면 가야사에 이른다. 그 곳에는 노목이 울창하여 길을 가로 막는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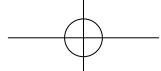
옥병계와 석문담은 사백 걸음 정도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석문담에는 수많은 돌들이 각양각색으로 어울려 있으며 양쪽에 빼죽이 높이 솟은 문 같은 바위에 석문담이라 각인되어 있으며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 움푹 패여 연못을 이루고 있다. 물은 그 밑이 보일 정도로 맑다는 것이다. 이처럼 석문담에는 기이한 바위와 맑은 연못 및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조화를 이룬 승경임을 알 수 있다.

잠곡 김육(1580-1658)은 석문담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중 문옥(文玉)과 함께 절을 나와서 천천히 걸어갔다. 스무 걸음도 채 못 되는 곳에 절벽을 가로지른 반석이 있었는데, 수백 명이 앉을 만큼 넓었고 아래에는 석문담(石門潭)이라는 깨끗한 못이 있었다. 석문담 위에는 두 개의 돌이 있었는데, 길을 끼고 양쪽에 있어서 마치 문과 같았다. 또 1리 가량을 가자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떨어져 내리는 석벽의 높이는 겨우 2, 3장밖에 안

45) 윤봉구, 암의 글, :“四曲石門潭, 在濕雲之小西衆仙洞北”

46) 이의숙, 「頤齋集」卷4, 「伽倻山記」, :“自玉屏數四百步, 至石門潭, 亂石鋪置, 其形多詭異, 或如槽或如龕如臼如龕如碁枰, 斗起兩邊者類門, 有刻曰石門潭, 水自門激射而下, 下陷而爲潭, 澄可類底, 自石門潭四里, 至伽倻寺, 老木蒼然擁路”



되었다. 아래에는 석추(石湫)가 있어서 넓이가 3, 4칸 가량 되었는데, 푸른 물결에 파란빛이 엉기었으며, 물굽이가 감돌아 흘렀다. 중이 말하기를, “이 뜻 속에는 용마(龍馬)가 살고 있으므로 이름을 마담(馬潭)이라 한다.”고 하였다.⁴⁷⁾

김육은 스님 문옥과 함께 석문담을 찾아 가 석문담 및 그 주변의 풍광을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절벽을 가로지른 반석에는 수백 명이 앉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석문담이라는 맑은 연못이 있으며 석문담 위에는 돌문과 같은 두 개의 바위가 양쪽에 서로 마주 서 있다. 두 세길 정도의 석벽에서 우렁차게 폭포의 물줄기가 쏟아지며 그 아래에는 서너 칸 정도 됨직한 연못에 시퍼런 물이 휘감아 돌고 있다. 그 연못 속에 용마가 살고 있기에 이름이 곧 마담이라는 것이다.

작품을 통해 그 시적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四曲石門雙立巖(사곡석문쌍립암) 사곡이라 석문담에는 두 바위가 서 있고

溪邊垂柳碧毵毵(계변수류벽삼삼) 시냇가엔 베드나무 푸르게 늘어져 있네

風波少處開明鑑(풍파소처개명감) 바람 물결 고요한 곳 맑은 거울 세워 놓은 듯

光影徘徊共一潭(광영배회공일담) 빛 그림자 연못에 어른거리네

四曲東西兩石巖(사곡동서양석암) 사곡이라 동서에 우뚝 솟은 두 바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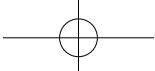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巖花垂露碧瑳玨(암화수로벽모삼) 바위 꽃 이슬 맞아 푸르게 드리웠네

金鷄叫罷無人見(금계규파무인견) 금계 울었으나 사람 보이지 않고

月滿空山水滿潭(월만공산수만담) 달은 공산에 휘영청 밝고 물은 연못에 넘쳐 흐르네

가야구곡의 제4곡인 석문담은 수량(水量)이 풍부한 작은 폭포 양쪽에 대문 기둥처럼 바위가 솟아 있어 석문담이라 한다. 습운천 위로 500미터 가면 큰 바위에 우암 송시열

47) 金堉, 「潛谷遺稿」卷14, 「天聖日錄」, :“與僧文玉, 出寺徐行, 行未二十步, 有盤石橫崖, 可坐數百人, 下有澄潭, 名石門潭, 潭上有兩石, 灰路爲門, 又行一里許, 有瀑流喧豗, 飛下石壁者僅二三丈, 下有石湫, 廣三四間, 碧波凝清, 灣環洄洑, 僧言此中有龍馬, 故名馬潭”



이 쓴 취석(醉石)이 석문담에 있다. 옥계산과 잘 어울려 천렵으로 좋은 곳이다. 시원스런 물줄기가 마음에 생동감을 준다.⁴⁸⁾

대문처럼 두 바위가 서 있고 맑은 시냇가에는 푸른 벼드나무가 늘어져 있다. 잔잔하게 이는 물결, 그 위로 반사되는 햇살, 연못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등 석문담 및 주변 풍광이 한 폭의 그림을 보듯 환기된다. 이처럼 윤봉구는 석문담과 그 주변의 수려한 서경을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을 뿐 시적 자아의 심경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석문담과 그 주변 풍광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을 뿐, 어떠한 메시지도 전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독자들은 그 속에 몰입해 있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통해 그의 무념무상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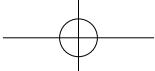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무이도가와 가야구곡의 제4곡의 기구와 승구는 커다란 두 개의 바위, 푸르른 색채감, 연못에 잠긴 그림자 등 그 시적 대상인 풍광이 상당히 유사한 듯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금계와 空山滿月로 인해 그 시간적 배경이 낮과 밤으로 다르다. 그렇기에 여기서 환기되는 시인의 심경도 무이도가의 고적감과 가야구곡의 한가로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성색(聲色)의 유혹이 없어진 위에 다시 이기적인 사심(私心)까지 없어졌고 보면,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가슴속이 쇄락해지면서 바야흐로 도(道)가 낙(樂)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위 산의 꽃과 물 위에 비친 달은 모두가 좋은 경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를 다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고 나만 혼자서 찾아온 것이다. 이는 마치 고요한 밤에 사람 하나 없는데 맑은 경치에 호연(浩然)해져서 나 홀로 그 경계를 보며 즐기는 것과 같으니, 명도(明道)가 음풍농월(吟風弄月)하며 돌아온 시절의 경지라고 하겠다.⁴⁹⁾

조익은 무이도가의 제사곡에 대해 성색(聲色)의 유혹, 사심(私心)이 사라진 경지로,

48) 김기현, 김현식, 잎의 책, 404쪽

49) 조익, 잎의 글, “既無聲色之惑, 又無有我之私, 則到此胸懷洒然, 方能見得道之爲樂, 巍花水月, 皆是好景矣, 蓋此境界, 他人未有到者, 而己所獨到, 如靜夜無人, 淸景浩然, 獨見而樂之也, 明道吟風詠月以歸之時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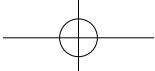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가슴 속이 쇄락해져 도가 낙의 대상이 된 상태를 노래했다고 하여 고적한 심경이 아닌 평정한 마음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가야구곡의 석문담은 비교적 많은 시인들이 찾아 완상하고 그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윤봉구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石門潭下玉溪東(석문담하옥계동) 석문담 아래 옥계 동쪽에
柳塢松簷淡淡風(유오송첨담담풍) 버드나무 소나무 우거진 곳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네
點檢午窓題舊軸(점검오창제구축) 한낮의 창가에서 옛 시첩을 점검하고
送君西入月山中⁵⁰⁾(송군서입월산중) 그대 보내노라니 달은 산 가운데 또 올랐네

극명상인이 서석에서 병계 위로 찾아 와 오래 된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곧 승정 계유년(1633년)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배 문사들이 상인의 법사 도휴자에게 준 시였다. 그 시첩에는 원운은 동악 이안눌(1571-1637)에서 시작하여, 택당 이식(1584-1647), 분서 박미(朴彌 1592-1645), 동회 신의성(1588-1644), 백주 이명한(1595-1645), 현주 조찬한(1572-1632), 계곡 장유(1587-1638), 기옹 정홍명(1582-1650), 지천 황정욱(1532-1607), 설정 조문수(曹文秀 1590-1647)가 운자를 맞춘 것인데, 문곡 김수항(1629-1689)이하 몽와 김창집(1648-1722), 소재 이이명(李頤命 1658-1722) 두 상국, 옥오 송상기(宋相琦 1657-1723)와 계통 이집(李漈 1670-1727), 성여 신점(申點 1530-1601), 사백 이일원, 장원 김준보 등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두 명사(明師)가 요청하여 쓴 시문(연축(聯軸))이었다. 이들은 위 아래로 95년간에 걸쳐서 이름난 대가들의 작품으로 모두 단폭(短幅) 가운데 모여 있으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진귀한 물건으로 생각되었다. 여러 차례 돌려가며 봉독하노라니 자신도 모르게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상인은 용모도 맑고 마음도 고상하여 함께 말할 만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함께 하루를 묵으면서 보운(步韻), 원운(元韻)으로 서툴게 시를 지어 그에게 드리고 감히 여러 선배들 밑아래에 내 이

50) 윤봉구, 「병계집」권1, 「克明上人, 自瑞石訪我屏溪之上, 展示舊軸, 蓋自崇禎癸酉…」



름을 남긴다⁵¹⁾고 하여 두 시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에 예시한 작품으로 석문담을 노래하고 있다. 위 시의 내용은 전술한 바를 압축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석문담의 풍광과 그곳에서 시간을 잊고 시를 탐독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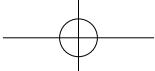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윤봉구를 비롯한 그의 가까운 친지들은 종종 석문담을 찾아 완상하며 그를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윤봉조(1680-1761)는 그의 숙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여러 부녀자와 함께 석문담을 구경하고 재아의 운으로 시를 지었다.⁵²⁾

巖洞幽尋興自悠(암동유심흥자유) 바위굴 그윽하고 깊으니 흥겹고 한가로운데
歸田恩逸共恩休(귀전은일공은휴) 전원에 돌아 와 편안히 지내니 모두 임금 덕택이네
堂成恰有親賓至(당성흡유친빈지) 집을 지으니 바로 친한 손들 찾아오고
潭近相將婦女遊(담근상장부녀유) 석문담 가까이서 서로 부녀를 동반하여 노니네
清坐瀑中團絮語(청좌폭중단서어) 폭포 가운데 둘러 앉아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고
小詩盃底瀉閑愁(소시배저사한수) 술 마시고 시 지으며 회포를 달래네
滿林楓葉知霜晚(만림풍엽지상만) 숲에 단풍 가득하니 서리 내린 것 알겠는데
十月山家尙作秋(시월산가상작추) 산 집에 시월은 아직 가을이라네

윤봉조는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명숙(鳴叔), 호는 포암(圃巖). 윤유건(尹惟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판 윤비경(尹飛卿)이다. 아버지는 직장(直長) 윤명원(尹明遠)이며, 어머니는 이경창(李慶昌)의 딸이다. 1699년(숙종 25) 생원이 되고,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사서·정언·부수찬 등을 거쳐, 1713년 암행어사가 되었다. 이어 이조좌랑·부교리·사인·응교 등을 역임하고 승지가 되었다. 영조가 숙종 때의 구신을 등용하려 하므로, 어느 벼슬에 누구를 쓰는 것이 옳다는 식의 말을 하여 영조에게 경박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이조참의 방만규(方萬規)의 상

51) 윤봉구, 앞의 글, :"克明上人, 自瑞石訪我屏溪之上, 展示舊軸, 蓋自崇禎癸酉, 先輩諸公所嘗贈詩於上人之法師道休者也, 元韻出於東岳老, 而澤堂, 汾西, 東淮, 白洲, 玄洲, 翳谷, 翳翁, 遲川, 雪汀之所承押者, 而至於文谷公以下夢窩, 跖齋兩相國, 玉吾宋太學士及李方伯季通, 申侍講聖與, 李詞伯一源, 金壯元魯甫諸作, 則皆明師所要而聯軸者也, 上下九十五年之間作者巨手, 皆聚於短幅之中, 真希世之珍玩, 奉讀數迴, 不覺爽翰之生牙頰也, 上人亦貌清而心高, 可與語, 留之一宿, 撫拙步韻以贈歸之, 敢托名於諸先輩脚下云爾"

52) 윤봉조, 「圃巖集」권2, :"陪叔母, 與一家諸婦子, 翫石門潭, 次宰兒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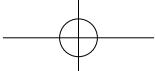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소사건에 관련되어 하옥되었다가 삭주에 귀양갔으나 곧 석방되었으며,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에 의하여 흥문관대제학에 천거되었으나 영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광좌(李光佐)가 정권을 획득하자 정의현(旌義縣)에 귀양가서 오랫동안 안치되었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에 실록도청당상을 겸하여 『경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735년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되었다가 1741년 관직이 복구되어 공조참판이 되었다. 1743년 다시 부제학이 되고 이어 지중추부사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757년 우빈객(右賓客)·판돈녕부사를 거쳐 1758년에 대제학이 되었다. 문장에 능하였으며 특히 소차(疏劄)에 능하였다. 저서로는 『포암집』이 있다.⁵³⁾

위에 예시한 작품은 바로 윤봉조가 정치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방축되어 전리(田里)인 가야산 자락에 돌아와 숙모님을 비롯한 친지들과 함께 가야구곡의 하나인 석문담을 찾아 폭포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일울한 회포를 달래며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서리 물든 단풍이 석문담 주변을 곱게 단장한 시월임을 나타내고 있고 시인의 심경은 한가하고도 흥취가 내포된 편안함이라 하겠다.

山溪多曲折(산계다곡절)	산 개울은 굽이굽이 흘러가고
春木繫遊驪(춘목계유려)	봄 나무에 망아지 매어 있네
危巖左右開(위암좌우개)	높은 바위 좌우에 우뚝 솟아 있고
碧流中奔馳(벽류중분치)	푸른 시내 세차게 흘러가네
落爲方圓潭(낙위방원담)	세찬 물줄기 뚝 떨어져 연못이 되었으니
坐弄皆清漪(좌롱개정의)	앉아서 맑은 물결 완상하네
我來荒野中(아래황야중)	나는 거친 들판에 찾아 와
不謂得斯奇(불위득사기)	이곳이 빼어난 곳이라 말하지 아니하네
仍歌滄浪曲(잉가창랑곡)	이어 창랑곡을 노래하노라니
山日落遲遲(산일낙지지)	산의 해는 더디게 넘어가네

5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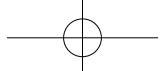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위의 예시(例詩)는 오원의 「가야사영(伽倻四詠)」 가운데 석문담(石門潭)이다. 시인이 석문담을 찾은 것은 산 개울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나무에 망아지 매어 놓고 풀을 뜯는 봄날이다. 시인이 바라 본 석문담은 좌우에 우뚝 두 바위가 높이 솟아 있고 그 앞으로 세차게 흘러가는 푸른 시내물, 그 세찬 물줄기가 떨어져 움푹 패여 연못을 이룬 곳이다. 그 곳에서 시인은 맑은 물결을 완상하며 창랑곡을 노래한다고 하였다.

창랑곡은 작자·연대 미상의 조선시대 가사. 3·4조가 주조를 이루고 4음보 1행으로 총 61행의 가사이다. 내용은 세상의 부귀공명을 버리고 일간어죽(一竿漁竹) 벗을 삼아 창랑(滄浪)가에 노닐면서 백년(百年) 광음(光陰)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서두의 “이 몸이 한가(閑暇)하여 산수간(山水間)에 소요(逍遙)하니 부귀공명(富貴功名) 뜻 없기는 연하고 질(烟霞痼疾) 병이로다 일간어죽(一竿漁竹) 벗을 삼아 백년(百年) 광음(光陰) 보내리라”라고 한 대목과 말미에 “진간애락(塵間哀樂) 내 아든가 세상흥망(世上興亡) 귀밖이라 무양(無恙)히 걸린 뱃돛 환해(宦海)로 향(向) 헤지 마소 창랑(滄浪)에 씻은 관끈 요진욕랑(要津欲浪) 물들리라”한 대목은 환해(宦海)를 떠나서 자연에 은일하고 싶어하는 작자의 사상이 잘 나타난 구절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 창랑곡의 유행시기 등을 감안하면 시인이 노래한다고 한 것은 군원의 창랑곡일 가능성이 높다. 군원(屈元)의 <업무사(漁夫辭)>에 보이는 “창랑지수청혜(滄浪之水清兮) 가이탁오영(可以濯吾纓) 창랑지수탁혜(滄浪之水濁兮) 가이탁오족(可以濯吾足)”이란 뜻은 치세에는 출사하고 난세에는 은둔하라는 의미로서 본 가사의 제목부터가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⁵⁴⁾

즉 시인이 현재 가야골에서 은거하는 것은 당면한 정치 현실 및 그와 연관된 자신의 처지 등이 복합적으로 함축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시인은 석문담의 맑고도 세찬 물줄기를 바라보며 하루해가 서산에 질 때까지 창랑곡을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하고 있다.

윤봉오는 그의 호를 석문(石門)으로 지을 정도로 석문담을 자주 찾아 완상하며 시문을 남기도 있다. 다음 작품은 윤봉오가 시월에 형, 아우, 조카, 여러 부녀들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석문담에 노닐면서 운을 내어 지은 시이다. 이 당시 윤봉오는 이러한

54) 「네이버고전문학사전」



분위기가 참으로 좋았다고 했다.⁵⁵⁾

歸來萬事揔悠悠(귀래만사총유유) 돌아오니 만사가 모두 여유로와
澗酒林詩自未休(간주임시자미휴) 숲 속 시냇가에서 술 마시고 시 짓기 그치지 아니하네
鷄社頻仍花樹會(계사빈영화수회) 어머니 모시고 친척들과 자주 모이니
鹿車後先板輿遊(녹거후선판여유) 수레 앞뒤로 어머님 가마에 모시고 노니네
一家共遜曾無悶(일가공돈증무민) 한 집안 모두 숨어 지내니 걱정없고
十口雖飢不掛愁(심구수기불쾌수) 식구들 굶주리나 근심은 없네
黃菊丹楓經歲恨(황국단풍경세한) 누린 국화 붉은 단풍 해 지남을 한하고
回頭已失滿山秋⁵⁶⁾(회두이실만산추) 머리 돌리니 벌써 온산에 가을이 떠나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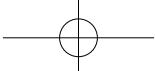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윤봉오(1688-1769)는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계장(季章), 호는 석문(石門). 유건(惟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판 윤비경(尹飛卿)이다. 아버지는 윤명운(尹明運)이며, 어머니는 이경창(李慶昌)의 딸이다. 판서 윤봉구(尹鳳九)의 아우이다. 1714년(숙종 40) 사마양시에 합격하여 일찍이 왕세제(王世弟: 영조)를 측근에서 보필하였고, 1746년(영조 2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필선이 되고 부수찬·교리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홍천현감으로 나갔다가 1759년 동지의금부사·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763년 특진관(特進官)으로 판돈녕부사를 겸하고 1768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석문집』 8권이 있다. 시호는 숙간(肅簡)이다.⁵⁷⁾

윤봉오는 고향으로 돌아와 그의 자친과 친척들을 모시고 석문담을 찾은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위의 예시(例詩)와 같이 토로하고 있다. 즉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낙향하여 경제적으로는 비록 빈한할지라도 마음만은 근심 없이 평온하다고 했다. 시인이 석문담을 찾은 것은 국화가 만발하고 단풍이 붉게 물든 늦가을이다. 시인은 늦가을 석문담을 찾아 술잔을 기울이고 시를 지으며 가을이 지나감을 아쉬워하고 있다.

55) 十月, 兄弟子侄共諸婦女, 陪慈親遊石門潭, 實勝事也, 宰侄出韻共賦

56) 윤봉오, 『石門集』권1

5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음 작품 역시 윤봉오가 석문담을 찾아 지은 작품이다. 윤봉오는 십사일에 병이 좀 차도가 있어 비로소 석문담에 들어 왔다. 두 아이는 어깨에 가마를 메고 한 아이는 낚시대를 든 채, 술 취해 석문담을 향해 가서 한가로이 귀거사를 읊는다⁵⁸⁾ 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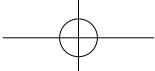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肩輿西入且盤旋(견여서입차반선) 가마 메고 서쪽으로 들어가니 길은 구불구불 빙 둘러 있고
嶽色泉聲撫宿緣(악색천성총숙연) 산 빛 샘물 소리 모두가 오래 묵은 인연이로다
秋日石門花莞爾(추일석문화완이) 가을 날 석문에는 꽃들이 방긋이 웃고
晚鍾雲寺夢依然(만종운사동의연) 산사의 저녁 종소리 꿈처럼 아득하게 들려오네
打禾田戶人人醉(타화전호인인취) 추수 끝낸 농부들 모두 술 취해 있고
下麥山畬處處烟(하맥산여처처연) 산밭에 보리 수확 곳곳에 연기 피어나네
舒嘯賦詩眞有樂(사소부시진유락) 시 지어 읊조리니 참으로 즐거워
始知靖節獲心先(시지정절획심선) 이제야 도연명 마음 알겠네

시인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마를 타고 석문담을 찾아간다. 석문담에는 높은 곳에 서 쏟아내는 우렁찬 물소리가 들리고, 석문담 주변에는 가을꽃이 수줍은 듯 피어있으며 인근의 산사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늦가을 추수를 끝낸 농부들은 농주(農酒)에 흠뻑 취해 흥겨워하고 산밭에는 가을보리 수확에 한창이다. 시인은 그러한 서경에 하나로 동화되어 시를 읊고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떠올리고 자신도 도연명이 되어 자족해 한다. 이처럼 윤봉오는 석문담을 찾아 그 곳의 서경을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도 하나로 동화된 합일의 심경을 형상하고 있다.

석문담은 가야골 북쪽 후미진 곳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드문데 죽천 김진규가 찾아내어 이름을 부여하고⁵⁹⁾ 그 곳에 각자(刻字)해 놓았다. 즉 석문담은 원래 마담(馬潭)이었는데 김진규가 이름을 고쳐 석문담이라 명명했다. 김진규가 이렇게 마담을 석문담으로 개명하게 된 것은 이태백의 시 ‘석문에서 물을 뿜어 평사에 연못이

58) 윤봉오, 「석문집」권1, “十四日, 痘間, 始入石門潭, 兩童肩輿翁, 一童漁竿持, 醉向石門去, 閑吟歸去詞”

59) 金鎮圭, 「竹泉集」권5, 「石門潭」, “潭在伽倻洞北僻處, 邑人罕有知者, 適余搜得”



되었다'란 말에서 그 이름을 취해 석문이라 했다.⁶⁰⁾ (이백의 시는 금사담(金沙潭)이라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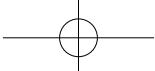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對峙奇巖匯玉流(대치기암회옥류) 기이한 바위 마주 대해 서 있고 맑은 물 모여드니
謫仙題品此相侔(전선제품차상모) 이태백이 노래한 석문담과 서로 짹할만하네
荒榛久蔽無人識(황진구폐무인식) 초목이 무성하여 오랫동안 가려져 아는 사람 없었는데
拄杖今來有客游(주장금래유객유) 나그네 지팡이 짚고 이제야 찾아 왔네
臨水賦詩聊自遣(임수부시료자견) 물가에서 시 지으며 그저 마음 달래지만
誅茅卜築與誰謀(주모복축여수모) 풀 베어내고 집짓기 누구와 함께하나
遭逢棄置何須感(조봉기치하수감) 버려 둔 곳 우연히 만남 어떤 느낌인가
却笑零陵賀小丘⁶¹⁾(각소영릉하소구) 영릉을 비웃으며 작은 언덕 칭찬하여 기리네

석문담은 기이한 바위가 서로 마주하고 우뚝 솟아 있고 맑은 물이 흘러 내려 연못을 이루었으며 주변에는 초목이 무성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곳으로, 이태백이 노래한 석문담과 비견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김진규는 예시(例詩) 수련과 함련에서 석문담에 관한 내력을 직서하고 자신이 석문담을 찾아오게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인은 물가에서 시를 짓고 이곳에 복거할 생각을 한다. 영릉은 중국 호남성 영주시에 있는 유종원의 묘당이다. 유종원은 개혁파인 왕숙문(王叔文)의 신정(新政)에 참여하였다가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주로 좌천되어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하였다. 그는 산수와 원림을 애호하여 조경풍치림 건설에도 참여하였으며, 「영주팔기(永州八記)」라는 수준 높은 조경 이론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⁶²⁾ 김진규는 이처럼 자신의 현재적 상황과 처지를 영주에서 산수와 원림을 애호하며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했던 유종원에 견주면서 석문담을 유종원의 영주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60) 金鎮圭, 「竹泉集」권5, 「石門潭」, :“即馬潭, 余改今號, 盖取太白詩石門噴作平沙潭之語”

61) 金鎮圭, 「竹泉集」권5, 「石門潭」

62) 「두산백과」



다음에는 제5곡을 살펴보기로 한다.

五曲花潭山更深(오곡화담산갱심)	오곡이라 영화담에는 산이 더욱 깊고
蒼蒼只是見雲林(창창지시견운림)	숲이 무성하여 운림만 보이네
看山看水無言坐(산산간수무언좌)	산과 물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으니
誰識閒中長道心(수식한중장도심)	한가로운 가운데 도심이 자라는 것 누가 알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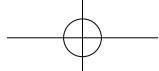
五曲山高雲氣深(오곡산고운기심)	오곡은 산 높아 구름 기운 깊어
長時煙雨暗平林(장시연우암평림)	언제나 안개비에 평림이 어둑하네
林間有客無人識(임간유객무인식)	숲 속 나그네 아는 사람 없고
欸乃聲中萬古心(애내성중만고심)	뱃노래 소리에 만고 수심 어려 있네

가야구곡의 제5곡은 영화담(暎花潭)이다. 영화담은 석문담에서 한 번 돌아 청룡방에 있다.⁶³⁾ 현재 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보덕사를 가려면 보덕교를 건너게 되는데 바로 위 쪽이다. 영화담은 상가리 버스 승강장 건너편의 물길이다. 장수바위가 있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⁶⁴⁾

시인은 숲이 우거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영화담을 찾아 말없이 산수를 완상하며 한 가로이 도심을 키운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청산은 엇지 하여 만고에 푸르르며/녹수는 엇지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난고/우리는 그치지 말아 만 상청 (萬古常青) 호리라”를 연상케 한다. 즉 퇴계가 만고에 푸르른 청산과 밤낮없이 흘러가는 녹수를 바라보며 만고상청을 다짐하듯 윤봉구는 영화담의 산수를 바라보며 퇴계와 유사한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주자의 <무이도가> 제5곡에서는 가야구곡과 유사한 서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한 풍광에 동화되어 도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만고심(萬古心)이라 했다. 만고심은 수심을 뜻하기도 하고 천고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조익은 다음과 같이 무이도가의 오곡을 해석하

63) 윤봉구, 앞의 글, :“五曲暎花潭。去石門一轉在青龍坊”

64)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4-405쪽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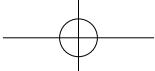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산고운기심(山高雲氣深)과 연우암평림(煙雨暗平林)은 그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더욱 깊어져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임간유객무인식(林間有客無人識)과 애내성중만고심(欸乃聲中萬古心)은 나 홀로 이런 경계에 도달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는 이가 없는 가운데 오직 만고의 성현들과 계합(契合)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계는 예로부터 성현들만이 도달했던 만큼, 사람들이 모두 알 수가 없고 오직 만고의 성현들만이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데, 가령 이윤(伊尹)이 농촌 들녘에 거처하면서 요순(堯舜)의 도를 즐긴 것이 바로 만고심(萬古心)인 것이다. 위의 사곡(四曲)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여기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모두가 자기 혼자 터득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⁶⁵⁾

즉 조익은 무이도가의 제5곡은 주자의 도의 경지가 높아지고 깊어짐을 비유한 것으로, 주자는 홀로 높은 경계에 도달하여 만고의 성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나 여타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였다. 만고심은 곧 이윤이 농촌 들녘에 거주하면서 요순의 도를 즐긴 것, 즉 높고 깊은 도의 경지라 하였다.

다음에는 제6곡을 살펴 보기로 한다.

六曲青槐曲水灣(육곡청槐곡수만) 육곡이라 푸른 느티나무 가에는 물굽이 돌아 흐르고
亭亭白塔掩禪關(정정백탑엄선관) 우뚝 솟은 백탑에 절이 가려있네
老僧住錫巖頭立(노승주석암두립) 노스님은 지팡이 짚고 바위 위에 서서
客至不言心自閒(객지불언심자한) 나그네 찾아와도 말하지 않으니 마음 저절로 한가롭네

65) 조익, 암의 글, :"山高雲深, 煙雨暗平林, 言其地位愈高愈深, 人所莫知也。林間有客無人識, 欸乃聲中萬古心, 言吾獨到此境界, 世人無知者, 而唯與萬古聖賢契合也, 蓋此境界, 唯古來聖賢所到, 故人皆莫識, 而與之爲徒者, 唯萬古聖賢而已也, 如伊尹處畎畝之中, 樂堯舜之道, 此便是萬古心也, 上四曲言無人見, 此云無人識, 皆是言己所獨得而人莫知之也"



六曲蒼屏遶碧灣(육곡창병요벽만) 육곡의 창병은 푸른 물굽이를 둘렀고
茅茨終日掩柴關(모자종일염시관) 띠집에는 온종일 사립문이 닫혀있네
客來倚櫂巖花落(객래의도암화락) 나그네 노에 의지하니 바위 꽃이 떨어지고
猿鳥不驚春意閒(원조불경춘의한) 원승이와 새들도 놀라지 않고 봄날 한가롭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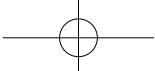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가야구곡의 제6곡은 탁석천(卓錫川)이다. 탁석천은 백탑 남쪽에 있는데, 본래 길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비록 종이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기는 했지만 그 수석이 저절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돌이 하얗고 반석처럼 널찍하다. 물이 돌아 연못을 이루어 하나의 굽이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⁶⁶⁾ 남연군 묘의 음수대 주변 계곡, 백탑 남쪽이다. 탁석천은 현재 상가저수지 밑에 있다. 다리도 있었고 닥나무가 많이 나던 곳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지가 지역 주민들의 주 수익원이 되었다. 이는 가야사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⁷⁾

윤봉구는 위의 예시(例詩) 기구와 승구에서 푸른 느티나무, 휘감아 도는 물굽이, 우뚝 솟은 백탑, 백탑에 가려져 선뜻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야사 등 탁석천과 그 주변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가야사의 노승과 탁석천을 찾은 자신은 서로 상대를 바라볼 뿐 말이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이다. 이처럼 시인은 탁석천을 찾아 심자한(心自閑)의 경지, 즉 서경을 통한 심경의 정화 및 안정 상태에 도달함을 표상하고 있다. <무이도가> 제6곡에는 절 대신에 사립문이 닫혀있는 초가집이 등장하고 노를 젓고 있는 시인, 꽃이 지는 봄날의 한가로운 정취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조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조도시로 해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미 계곡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속세의 소음도 멀리 사라지고 거처할 집도 마련된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계가 모두 편안하고 한가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기만 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고요해져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곡(四曲)부터 여기까지는 그 뜻이 대개 비슷해서, 모두

66) 윤봉구, 앞의 글, :“六曲卓錫川, 在白塔南…卓錫則雖爲楮夫所穢熟, 而觀其水石天成, 則石白而盤, 水匯而淵, 可以備一曲矣”

67)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5쪽



사욕(私欲)이 없어지고 난 뒤의 자득(自得)의 낙을 말하고 있는데, 한 단계씩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⁶⁸⁾

조익은 제4곡에서 6곡은 서로 비슷한 경지로, 이는 곧 사욕이 없어지고 난 뒤의 자득의 낙을 말하고 있는데 한 단계씩 더욱 깊은 경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곧 노를 저어 무이계곡을 유람하는 경지도 점점 깊어지고 그에 따라 마음 또한 안락해진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제7곡을 살펴 보기로 한다.

七曲循溪泝幾灘(칠곡순계소기탄) 칠곡이라 시냇물 돌아 여울을 거슬러 흐르고
蛟龍窟宅駭心看(교룡굴택해심간) 교룡이 살까 해서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네
淵潛何日施能普(연잠하일시능보) 물 속 깊이 숨어 있다 어느 날에 널리 베풀 수 있을는지
蘿壁沈吟五月寒(라벽침음오월한) 담쟁이덩굴 벽랑에서 깊이 생각하니 오월에도 싸늘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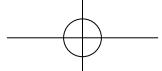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七曲移船上碧灘(칠곡이선상벽탄) 칠곡에서 배를 옮겨 벽탄으로 올라가
隱屏仙掌更回看(은병선장갱회간) 은병 선장 다시 바라보네
却憐昨夜峰頭雨(각련작야봉두우) 어여쁘다 지난 밤 산꼭대기 내린 비
添得飛泉幾道寒(첨득비천기도한) 불어난 저 비천 얼마나 차가울가

가야구곡의 제칠곡은 와룡담(臥龍潭)으로, 가섭봉 동쪽 아래 능인암 아래에 있다.⁶⁹⁾ 지금의 상가저수지에서 계곡물이 유입되는 지점으로 상가저수지 바로 위에 있다. 옥병계, 석문담, 와룡담만 각자(刻字)가 있는데, 와룡담의 것은 볼 수가 없다. 상가저수지 때문에 와룡담 바위가 잠겼기 때문이다. 와룡폭포는 남아 있다. 와룡폭포 밑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⁷⁰⁾ 「여지도서」에는 폭포가 있어 물이 돌아서 나가면서 연못을 이

68) 조익, 앞의 글, “到此, 其入已深, 去塵俗囂喧已遠, 居宅已成, 身之所處, 耳目所接, 無非安閑和樂之境矣, 所謂靜而能安也, 自四曲至此, 其意蓋相似, 皆是言私欲盡後自得之樂, 而一節深一節也”

69) 윤봉구, 앞의 글, “七曲臥龍潭, 在迦葉峯之東趾能仁菴下”

70)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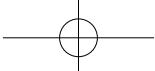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루며 용연(龍淵)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곳에서 오래도록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낸 장소라고 한다.

가야구곡중 와룡담은 현재 상가저수지가 만들어지며 수몰되어 더 이상 와룡담의 각자(刻字)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마을과 인근의 선비들이 이 각자가 있는 반석에서 공부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에는 가야구곡중 탁석천과 지장둠병(가야사지옆에)이 있다. 와룡담은 넓은 바위와 폭포 2~3 개,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연못이 있었으나 저수지가 만들어지며 작은 폭포 1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와룡담은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와룡담은 석문봉과 용연사 빈발 수렴동에서 흐르는 물과 혜목(대치로고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합수되는 상류에는 마을 주민들이 해미로 가는 옛길이 아직도 있고(현 등산로) 상류인 가야산 8부 능선인 빈발의 인근에 용연사가 있는데 용연사지는 건축물과 석탑 등을 제외한 우물터, 지대석 그리고 인근의 부도와 기단등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와룡담은 저수지가 조성되며 상류의 토사가 유입돼 40년 이상 매몰돼 있었다.

이의숙은 「가야산기」에서 석문담에서 가야사 및 와룡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석문담에서 사리를 가면 가야사에 이른다. 그 곳에는 노목이 울창하여 길을 가로 막는다. 길 옆에는 부도(동근 돌탑)가 있고 누 앞에는 또 부도와 조그만 돌탑이 있다. 불당에는 커다란 부처가 북쪽을 향해 안치되어 있는데 높이가 두 길이 넘는다. 몸체 둘레에 그 길이로 일컬어진다. 절 뒤에는 돌로 만든 사다리가 73계단이 있다.

돌 계단 위에는 석탑이 서 있는데 높이가 삼 백척은 됨 직하고 모두 몇 층이나 된다. 층에는 각각 작은 불상이 있고 탑끝에는 구리와 주석으로 된 커다란 고리가 씌어져 있고 쇠밧줄로 연결되어 있다. 돌 틈에는 무쇠를 녹여 부어서 비바람에도 닳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탑에서 조금 남쪽으로 가면 계곡이 그윽하고 깊숙하여 물레방아가 있다. 벼랑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 수 백보를 가면 용암이 있다. 암자 아래에서 또 몇 걸음 가면 바위가 있는데 또한 와룡담이라 새겨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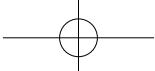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다. 연못 위에는 폭포가 있어 연못에 물이 떨어져 연못이 깊고 시퍼렇다. 그래서 가까이서 구경할 수 없다. 스님이 말하기를 연못이 깊어 밑이 안 보인다고 한다. 맑은 물이 떨어져 세 개의 샘이 되었다. 양 언덕에는 삼나무 상수리나무에 칡덩굴(담쟁이)이 얹히고설키어 있어 숲과 꽃이 떨어져 물에 떠 붉은 색을 띤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복을 빌면 점점 말과 시에 능하여 그들과 더불어 옮고 돌아 왔다.⁷¹⁾

그윽하고 깊숙한 계곡에 세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로 물레방아를 돌리고 암자 아래에는 용이 누워 있는 형상의 바위 곧 와룡담의 각자(刻字)가 있으며, 연못 위에는 폭포가 있고 그 폭포가 세차게 물을 뿜어내어 그 밑에는 시퍼란 물이 고여 연못을 이루고 있으니 이곳이 바로 와룡담이다. 연못은 깊어서 그 밑이 보이지 않고 그 주변 언덕에는 여러 나무가 우거져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시(例詩)에서 시인이 와룡담을 찾은 것은 음력 오월이다. 시인은 와룡담을 찾아 그 우뚝한 벼랑에서 세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시각적, 청각적으로 와룡담과 그 주변 풍광을 서경적으로 묘사하는 한편으로, 연못의 이름을 환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애민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그것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과도 연관되는 시인의 발상이다. 이에 비하여 무이도가에서는 시인은 노를 저어 벽탄으로 올라가 은 병과 선장을 바라보며 간밤에 내린 비로 불어난 폭포의 물줄기에 감탄한다. 그런데 조 익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조도시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안정을 ‘찾을 수 있는[能安]’ 경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될 것이니, 이는 최고의 경지에까지 완전히 이르지 못한 이상에는 나아가는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선상벽탄(移船上碧灘)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71) 이의숙, 앞의 글, :“自石門潭四里, 至伽倻寺, 老木蒼然擁路, 路左有浮圖, 樓前又有浮圖小石塔, 佛宇有大鑄像北坐, 高過二丈, 體圍稱其長, 寺後作石梯七十三級, 上起石塔, 高可三百尺, 凡幾層, 層各有小佛身, 塔末冒銅錫大環, 維以鐵索, 石罅銀注水鐵, 風雨不足磨撓, 自塔少南, 脊壑窈窕, 有水碓, 緣崖右轉數百武, 有龍庵, 庵下又幾步有巖, 亦書曰卧龍潭, 潭上有瀑, 潭蓋湛然深碧, 不可狎觀, 僧言淵深無底, 直澈三泉, 兩岸杉櫟藤蘿糾纏轚轚, 林葩新落, 水泛餘紅, 學佛人聚祐稍能語詩, 與之咏而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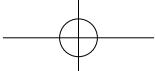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에 다른 특별한 공부가 꼭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달한 지위에서 더욱 쉬지 않고 노력하여 더욱 깊고 더욱 높은 경지를 터득하는 것이니, 이는 곧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뜻이라고 하겠다. 은병선장갱회간(隱屏仙掌更回看)은 바로 온고(溫故)의 비유이고, 첨득비천(添得飛泉)은 바로 지신(知新)의 비유이다. 여기서부터 구곡(九曲)까지는 그 뜻이 또 서로 비슷하니, 편안하고 평화로운 지위에 일단 도달하고 나서도 반드시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힘껏 노력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모두 말하고 있다.⁷²⁾

제7곡의 경지는 아직 최고의 경지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상태로, 멈출 수 없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가 필요한 단계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는 다른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현재의 단계에서 더욱 쉬지 않고 정진하여 더욱 높은 경지를 터득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온고지신의 의미이다. 즉 간단없는 노력 정진의 단계가 제7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원은 「가야사영(伽倻四詠)」에서 와룡담(臥龍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飄然負藜杖(표연부려장)	훌쩍 청려장을 짊어지고
不問水西東(불문수서동)	물의 동서를 묻지 않네
巖光漸明鮮(암광점명선)	바위 빛은 점점 밝고 산뜻한데
水落煙靄中(수락연애중)	물은 아지랑이 가운데에 떨어지네
高崖屢噴薄(고애루분박)	높은 낭떠러지로 세차게 뿐어대고
颯沓來山風(삽답래산풍)	산바람 쏴아 불어오네
白雲易迷人(백운이미인)	흰 구름에 마음 끌리기 쉽고
靈源行不窮(영원행불궁)	신령한 수원 흘러가도 다함이 없네

72) 조의, 앞의 글, :“既到能安境界, 又須更進, 不可便止, 蓋未至於極處, 其進不可止也, 移船上碧灘, 言其更進也, 然其進不必更有別工夫, 唯就所到地位, 益勉勵不息, 而其所得益深益高耳, 卽是溫故而知新也, 隱屏仙掌更回看, 卽溫古之喻, 添得飛泉, 卽知新之喻也, 自此至九曲, 其意亦相似, 皆是言已到安和地位, 又必着力求進, 以至於極也”



春衣掛青樹(춘의괘청수) 봄옷을 푸른 나무에 걸어 놓으니

石潭澄映空⁷³⁾(석담정영공) 연못이 맑고 맑아 그 위에 비치네

시인은 신록이 푸르른 봄날 청려장을 짚고 와룡담을 찾았다. 와룡담의 세찬 물줄기가 높은 벼랑 아래로 희뿌연 물보라를 이루며 떨어지고 주변의 바위는 밝고도 산뜻하다. 때마침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는 흰구름이 한가롭게 떠간다. 와룡담 연못에 휘감아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여 봄날의 신록이 그 위에 어리비치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처럼 시인은 와룡담을 찾아 와룡담 및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서경을 통한 심경의 토로나 여타의 의미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관찰자로서 충실히 와룡담과 그 주위의 풍광만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적 자아의 서경묘사를 통하여 그 속에 동화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곧 한가롭고 여유로운 심적 상태를 읽을 수 있다.

다음에는 제8곡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야구곡의 제8곡은 고운벽(孤雲壁)으로, 영대(靈臺) 조금 아래 시내 남쪽에 있다. 고운벽에 단풍이 들고 물이 세차게 흐르는 여울 또한 모두가 그윽하고 한가로워 그를 대하면 문득 즐거워 기쁨에 젖는다.⁷⁴⁾ 상가 저수지에서 가야산으로 오르는 도중에 남쪽과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갈림길이 나오기 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고운벽은 석문봉 등로(登路) 밤 밭 혹은 옛 절터 인근의 기도터다.⁷⁵⁾

八曲秋清山雨開(팔곡추청산우개) 팔곡이라 가을 맑아 산비가 개이고

溪流汨瀉乍沿洄(계류골괴사연회) 시냇물 소리 없이 거슬러 흐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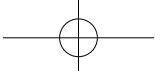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孤雲霽樹依微起(고운제수의미기) 외론 구름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피어나고

復見迤迤翠壁來(부견이이취벽래) 다시 보니 비스듬히 푸른 벼랑에 걸쳐있네

73) 吳璫, 「月谷集」, 卷2 「伽倻四詠」, 「臥龍潭」

74) 윤봉구, 앞의 글, 「八曲孤雲壁, 在靈臺少下溪南…孤雲之楓壁激湍, 亦皆幽閒窈窕, 對之輒怡然自喜」

75)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5쪽



八曲風煙勢欲開(팔곡풍연세욕개)

팔곡이라 바람 불어 안개 걷히려 하고

鼓樓巖下水繁洄(고루암하수영회)

고루암 아래 물결 맴돌아 흐르네

莫言此處無佳景(막언차처무가경)

이곳에 멋진 경치 없다 말하지 마오

自是遊人不上來(자시유인불상래)

이로 인해 나그네 오지 않을까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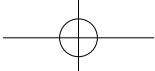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고운벽은 글자 그대로 외로이 높게 솟은 절벽 위로 구름이 끼어 있는 곳이다. 위의 예시(例詩) 승구와 결구는 이러한 고운벽의 모습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산 비가 개인 맑은 가을날 고운벽을 찾아 가 푸른 절벽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우거진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구름 등 고운벽과 그 주변의 수려한 풍광을 서경적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도 시인은 관찰자적 입장에서 서경을 묘사하고 있을 뿐 시적 자아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도 우리는 시인의 한가롭고 여유 있는 심적 상태를 규지할 수 있다.

그런데 주자는 무이도가에서 산들바람에 안개가 걷혀가고 고루암을 맴돌아 흐르는 물결을 서경으로 제시하여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경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찾아오는 나그네가 없을까 염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익은 다음과 같이 조도시로 해석하고 있다.

이 팔곡의 지위는 매우 높으니, 최고의 경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세 욕개(勢欲開)는 최고의 경지와 가깝게 된 것을 비유한 말이다. 막언차처무가경(莫言此處無佳景) 자시유인불상래(自是遊人不上來)는 세상에서 도를 추구하는 자들 중에 이 지위에 도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다는 말이다.⁷⁶⁾

조익은 제8곡을 최고의 경지인 9곡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세욕개(勢欲開)’는 이러한 경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라고 하였다. 아직 최고의 경지인 제9곡을 남겨두고 있지만,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8곡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또한 아

76) 조익, 앞의 글, “此地位甚高, 將近於極處, 勢欲開, 卽近於極處之喻也,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言世之學道者未有到此地位者也”



직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제9곡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구곡은 옥량폭(玉梁瀑)으로 용담 북쪽 자옥봉 아래에 있는데 산의 스님이 고량동이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다른 갈래이다. 옥량폭포는 그 위 산봉우리의 모습이 아주 빼어나 폭포의 흐름이 기이하고 장관인데 아래 팔곡으로 흐르는데 어느 정도인지 다른 곳과 비교할 수는 없다. 발원지 꼭대기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은 비록 산 아래 사는 육칠십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관광객이나 나그네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여기에 한 번 이를 수 있겠는가⁷⁷⁾ 라 하여 윤봉구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하였다. 가야산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있다. 제8곡인 고운벽에서 석문봉 등산로를 따라 30여 분을 올라가면 폭포가 장쾌하게 내려 쏟아지는데, 그곳이 제9곡인 옥량폭이다. 옥량폭은 석문봉 등산로 옥계천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⁷⁸⁾

九曲雙峯勢屹然(구곡쌍봉세흘연)

巖間百尺瀉長川(암간백척사장천)

遊人不肯窮源至(유인불궁궁원지)

豈識仙區別洞天(기식선구별동천)

구곡이라 두 산봉우리 우뚝하게 서 있는데

백척 높은 바위 사이로 밤낮없이 쏟아지네

나그네들 수원이 다한 곳에 오려하지 않지만

선계 중의 별천지임을 어찌 알겠는가

九曲將窮眼豁然(구곡장궁안활연)

桑麻雨露見平川(상마우로견평천)

漁郎更覓桃源路(어랑갱멱도원로)

除是人間別有天(제시인간별유천)

구곡 막다른 골에 이르니 시야가 탁 트이고

뽕과 삼 우로에 젖어 평천이 보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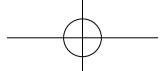
어부는 다시 도원의 길을 찾지만

여기가 바로 인간세계 별천지라네

옥량폭은 가야구곡 가운데 마지막 장소로, 두 산봉우리 사이에 우뚝하게 솟아 있는 높은 바위 사이로 세차게 물을 쏟아내는 폭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곳은 후미진

77) 윤봉구, 앞의 글, :"九曲玉梁瀑, 在龍潭北紫玉峯下, 山之僧稱古梁洞者也, 示別派也…况玉梁則峯勢特拔, 瀑流奇壯, 下流八曲, 幾不可與比倫, 在其源頭最深處, 雖山下居人年六七十, 而迹有未嘗到此者, 況遊人過客, 何從聞而一至此耶"

78) 김기현, 김현식, 앞의 책, 4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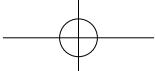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곳에 있기에 관광객이나 일반적인 나그네들은 물론 오랫동안 가야산 자락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촌로(村老)들 조차 알지 못하는 곳이다. 옥량폭은 궁원(宮源) 즉 발원지이다. 그렇기에 가야구곡은 이 발원지를 향한 역행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이도가>도 동일하게 제1곡에서 제9곡에 이르는 여정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에서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유람의 마지막 공간인 9곡을 ‘별유천(別有天)’, 즉 유가적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 원두처(源頭處)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시각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는 행위 자체가 유가 수양론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성 회복의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가야구곡의 옥량폭에서 유인(遊人)은 이 궁원에는 볼 것이 없다고 여겨 찾지 않는다. 하지만 시인은 이곳이야말로 숨겨진 선계 중의 별천지라는 것이다. 이는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의 제9곡에서 “구곡(九曲)은 어디미오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뭇쳤세라/유인(遊人)은 오지 안이오고 볼 것 업다 허더라”的 의취와 상당히 유사하다. 고산구곡가의 기암괴석이야말로 가야구곡에서의 옥량폭처럼 별천지의 승경이다. 그런데 유인(遊人), 즉 세인(世人)들은 눈이 덮혀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볼 것이 없다고 그냥 지나친다. 이는 곧 참된 모습을 지나쳐 버린 피상적 인식이다. 그렇기에 율곡과 병계는 이러한 세태를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야구곡에서 서경을 통한 심경의 함축적 토로가 짙게 표백된 곳은 제9곡이라 할 수 있다.

주자의 <무이도가> 제9곡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곳이다. 어부로 표상된 세인은 제9곡에 도착하여 탁 트인 넓은 평원과 비와 이슬에 젖어 있는 봉과 삼을 보고 그곳을 승경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른 이상향(도원)을 찾으려 한다. 여기서 시인은 바로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별천지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내용은 율곡의 고산구곡가나 병계의 가야구곡가와 동일한 심상을 지니고 있다. 환연하면 눈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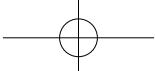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79) 조유영, 앞의 글, 41쪽



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피상적 인식에 머물게 된다는 경계라 할 수 있다.

조의은 제9곡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나름대로 생각건대, 이곳에 도착하자 산의 형세가 양쪽으로 나뉘어 열리며 그 가운데에 토지가 널찍하고 평평하게 펼쳐지는데, 더 이상 기이하고 특수한 경관(景觀)이 있지는 않지만, 농지와 농작물 등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한다. 가장 높은 경지의 도를 소유한 분으로 말하면, 기특하고 비범하여 인간 세상을 초월한 일을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상적으로 날마다 쓰는 사물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요순도 우리 사람들과 똑같다.[요순여인동(堯舜與人同)]”고 한 것이 이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분들은 평상시에 정조(精粗) 대소(大小)의 일을 막론하고 미진한 점이 없게 함은 물론이요,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 가운데[불사불면(不思不勉)]’ 천도의 실상과 순수하게 부합되어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공자(孔子)가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면서 위로 하늘의 이치를 터득한다.[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고 한 것이 이것이라 하겠다. 안활연(眼豁然)은 본 것이 투철한 것을 말하니, 즉 ‘지혜를 통해 높아진 것으로서 하늘을 본받은 것[지승(知崇) 법천(法天)]’에 해당하고, 상마우로견평천(桑麻雨露見平川)은 도가 단지 평상적인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을 말하니, 즉 ‘예법을 따라 낚춘 것으로서 땅을 본받은 것[예비(禮卑) 법지(法地)]’에 해당한다. 이것은 터득한 견해가 지극히 고명(高明)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그저 평상적인 일일 뿐이라는 말이다. 어랑갱멱도원로(漁郎更覓桃源路)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은 이곳이 바로 선경(仙境)의 궁극에 다다른 곳인데, 만약 노니는 자가 평상적인 것을 싫어해서 다시 도원(桃源)을 찾는다면 잘못이라는 말이다. 가령 도를 배우는 자가 도는 일상생활 사이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이하고 특이한 일이 되는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도에서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제시(除是)는 오직이라는 뜻의 유시(唯是)와 같다. 오직 인간 세상 속에 별천지가 있는 것이요,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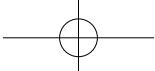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로 찾아갈 만한 도원이 있을 수는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는 이단(異端)의 학을 지칭한 것으로 그 허망(虛妄)함을 말한 것이다.⁸⁰⁾

제9곡은 더 이상 기이하고 특수한 경관이 없고 농지와 농작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이다. 이는 곧 가장 높은 경지의 도를 소유한 사람은 평상적인 것에 벗어나지 않기에 제9곡은 평상적인 일상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터득한 도의 경지는 지극히 고명하지만 그 행동은 평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9곡이야말로 선경의 궁극처인데 평상적인 것을 싫어해서 다시 도원을 찾는다면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추구해야지 기이하고 특이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도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별천지는 인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 이지 별도의 공간에 별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별천지를 찾는 행위는 이단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주자는 무이도가 제9곡에서 이단의 허망함을 경계한 것이라고 한다. 조익의 이러한 해석은 전술한 율곡이나 병계의 제9곡의 함축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무이계(武夷溪) 유람의 종착지인 9곡은 신촌(新村)으로, 이곳은 봉나무와 삼밭이 있는 평천(平川)이며 범상(凡常)한 공간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무이구곡을 거슬러 별천지를 찾아왔던 많은 어랑(漁郎)들은 9곡의 평범한 경관에 실망하고, 또 다른 도원(桃源)을 찾고자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주자는 인간 세상의 별천지는 오직 이곳뿐임을 단언한다. 주자는 전반적으로 도화원기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무이도가>의 시상을 낭만적으로 전개하기는 했지만, 무이계(武夷溪) 또한 선계가 아닌 현실 공간으로서, 그리고 유가적 이상향으로서의 산수임을 말하였다. 따라서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은 철저히 성리학적 산수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오원은 「가야사영(伽倻四詠)」에서 가야구곡의 옥량폭(玉梁瀑)을 찾아 다음과 같이 옥량폭의 서경과 그와 연관된 그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80) 조익, 앞의 글, :“竊意至此山勢分開, 其中土地寬廣平行, 無復奇特殊絕之觀, 而有田疇桑麻民生日用之需, 故以爲喻, 蓋道之極處, 非有奇特非常絕人之事, 唯不離於平常日用事物之間, 所謂堯舜與人同, 是也, 但於平常之中, 精粗細大無所不盡, 而其不思不勉, 純於天道之實, 人不可測知爾, 孔子之下學而上達, 是也, 眼豁然, 言其所見透徹, 卽知崇法天也, 桑麻雨露見平川, 言道只在平常日用間也, 卽禮卑法地也, 言其見極於高明, 而其行只是平常也,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言此是仙境極處, 若遊者厭其平常, 而更求桃源則失之矣, 如學道者謂道不在日用間, 欲求爲奇特之事, 則去道遠矣, 除是, 猶言唯是也, 唯是人世間有別乾坤, 乃有桃源可覓處, 言其無此理也, 蓋指異端之學而言其虛妄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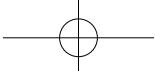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臨溪石爲徑(임계석위경)	시냇가 자갈 많은 오솔길에
花露濕未收(화로습미수)	이슬 머금은 꽃 아직 마르지 않았네
誤落青蘿中(오락청라중)	잘못 푸른 댕댕이 덩굴 가운데로 떨어져
仍逢碧潭留(잉봉벽담류)	곧 바로 만나 푸른 연못에 머무르네
懸溜灑滿衣(현류쇄만의)	매달린 물방울 옷 가득 뿌려대고
危壁立當頭(위벽입당두)	높다란 절벽 정면에 서 있네
窈然非人境(요연비인경)	멀고 아득하여 사람 사는 곳 아니라서
林鳥下更幽(임조하개유)	숲 속 새들 고요히 내려오네
清冷山水意(청령산수의)	맑고 깨끗한 산수의 마음 지니고
獨與耳目謀 ⁸¹⁾ (독여이목모)	홀로 보고 듣는다네

오원이 옥량폭을 찾은 시간은 아직 꽃에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아침 무렵이다. 시인은 시냇가 오솔길을 따라 옥량폭을 찾아간다. 옥량폭 주변에는 이슬 머금은 꽃들, 푸른 댕댕이 덩굴, 우뚝 솟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 그 아래의 푸른 물이 감도는 연못, 숲 속에서 한가로이 나는 산새들이다. 시인은 이러한 옥량폭과 그 주변 경관을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한 폭의 그림처럼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 가운데서 세사의 온갖 잡사를 잊고 청정한 심경에 몰입한 경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탈속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써의 옥량폭은 아니다. 사실적 서경과 그에 연관된 시인의 심경이 담백하게 표백되어 있을 뿐이다.

4. 결어(結語)

조선조 구곡문화는 주자가 그러했듯이 산간 계류(溪流)를 중심으로 구곡원림을 설

81) 吳瑗, 「月谷集」권2「伽倻四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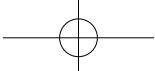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정하고, 수양과 강학을 위한 정사(精舍)를 건축하며, 구곡을 대상으로 구곡시를 창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무이구곡이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아홉 굽이를 설정하였듯이, 우리의 구곡원림 또한 대부분 주자의 이러한 구곡원림 설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⁸²⁾ 충남 덕산 및 해미에 걸쳐 있는 가야산에 있는 가야구곡 또한 이러한 구곡경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야산은 산수의 경관이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외적의 피해가 쉽게 닿지 않는 살기 좋은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이곳에 구곡을 경영하고 그 풍광을 예찬하며 이를 시문으로 형상화하였다.

가야구곡은 죽천 김진규(1658-1716)와 병계 윤봉구(1683-1767) 및 그의 아우 윤봉오(尹鳳五, 1688-1769)가 구곡을 설정하고 그 차례와 명칭을 부여하였다. 가야구곡은 처음부터 구곡 전체로 온전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구곡 가운데 이곡(二曲)의 옥병계와 사곡(四曲)의 석문담 및 칠곡(七曲)의 와룡담 두 연못 등 세 곳은 죽천 김진규가 그 이름을 짓고 이를 팔분체로 써서 바위에 새겨 놓았다. 그 이후 나머지 육곡은 윤봉구와 그의 아우 윤봉오가 그 곳에 집을 지은 후 이름을 지었다. 그 이후 윤봉구는 가야구곡에 복거하여 지내던 중 혹은 연못, 혹은 폭포, 혹은 벼랑, 혹은 바위에 가면 그윽하고 깊숙하며 한가하고 우아하며 기이하고 웅장하며 냇물이 얕고 깊어 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풍광과 그와 연관한 심경을 시를 지어 표현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마침 침랑(寢郎) 강성서(姜聖瑞)가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운을 사용하여 가야구곡을 짓고 윤봉구에게 편지를 인편에 보내 보여주고 화답을 요구했다. 그런데 강성서가 쓴 가야구곡 시는 구곡의 명칭과 순서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 이에 윤봉구는 이를 바로잡고 그가 전에 정했던 이름을 사용하여 그 곡의 차례를 따라 가야구곡 시를 지었다. 그리하여 제1곡 관어대(觀魚臺), 제2곡 옥병계(玉屏溪), 제3곡 습운천(濕雲泉), 제4곡 석문담(石門潭), 제5곡 영화담(映花潭), 제6곡 탁석천(卓錫川), 제7곡 와룡담(臥龍潭), 제8곡 고운벽(孤雲壁), 제9곡 옥량폭(玉梁瀑) 등으로 가야구곡의 명칭과 순서가 오늘날과 같이 확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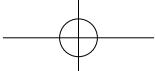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82) 조유영, 앞의 논문, 40쪽



김진규는 병조참판에 오른 직후인 49세(1706년, 숙종32)에 충청도 덕산에 유배되었다. 김진규는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그로 인한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자연스럽게 명산대천을 찾게 되었는데, 가야산은 곧 배소에서 가장 가까운 명산이었다. 김진규는 그 당시 가야산의 가야구곡 중 석문담, 와룡담, 옥병계를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여 명칭을 정하고 그 곳을 수시로 찾아 풍광을 완상하며 시문을 창작하였다. 석문담은 가야골 북쪽 후미진 곳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마침 김진규가 찾아 그 곳의 이름을 석문담으로 확정하였다. 김진규가 석문담을 찾아 그 명칭을 정하기 이전에는 석문담은 마담(馬潭)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 석문담이라 했다. 석문담이 이전에 마담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 연못 속에 용마(龍馬)가 살고 있으므로 이름을 마담(馬潭)이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마담을 석문담으로 고쳐 명명하게 된 것은 이태백의 시 「금사담(金沙潭)」과 연관이 깊다. 즉 김진규는 이태백의 시구 “석문에서 물을 뿐어 평사에 연못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그 이름을 취해 석문담이라 하였다. 김진규가 옥병계라 명명하기 이전에 옥병계는 기암(妓巖)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고쳐 옥병계라 하였다. 그런데 옥병계가 기암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덕산현의 관기가 실수로 이 절벽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었기에 기암(妓巖)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진규는 석문담, 와룡담, 옥병계라는 글자를 암각해 놓았다. 또 석문담에는 우암 송시열이 취석(醉石)이란 글자를 새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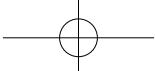
김진규와 윤봉구 형제는 왜 가야구곡을 경영하고 그와 관련한 시문을 창작한 것은 곧 주자의 무이도가와 관련이 깊다. 윤봉구는 그의 「가야구곡 차무이구곡운(伽倻九曲次武夷九曲韻)」 병서(並序)에서 규지할 수 있듯이 가야구곡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차운하여 창작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윤봉구의 가야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와 같이 서시인 가야산을 포함하여 제1곡에서 제9곡까지 모두 10수로 되어 있다. 제1곡인 ‘관어대’로부터 제9곡 ‘옥량포’까지는 대략 십여리가 좀 넘는다. 본고에서는 윤봉구의 가야구곡시 및 여타 시인의 가야구곡 관련시를 주자의 무이도가와 배비하여 고찰해 보았다. 윤봉구의 가야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했기에 작품의 구조 및 그 서경적 묘사는 일견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병계의 가야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가 조도시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병계의 가야구곡시는 가야구곡의 실경에 기반하여 그 서경을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서경을 통해 시인의 심경 또한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가야구곡은 가야산 입구인 덕산면 옥계리에서 상가리까지 약 3km의 걷는 길이 가야구곡 녹색길이라는 이름으로 2011-2012년도에 조성되었다. 가야구곡을 따라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인 덕산온천, 남연군묘, 덕산향교, 현종태실, 광덕사, 보덕사, 옥계저수지, 상가저수지, 가야산등 덕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탐방할 수 있다. 코스 경로는 덕산온천 관광안내소 ~ 옥계저수지 ~ 옥계리 마을회관 ~ 옥병계 ~ 석문담 ~ 남연군묘 ~ 와룡담 등으로 16km의 거리에 소요시간은 대략 4시간 30분 정도이다.



참고문헌

- 「新增 東國輿地勝覽」
奇大升, 「高峯集」
金堉, 「潛谷遺稿」
金鎮圭, 「가야구곡」, 「竹泉集」
宋時烈, 「宋子大全」
吳瑗, 「月谷集」
尹鳳九, 「屏溪集」
尹鳳五, 「石門集」
尹鳳朝, 「圃巖集」
李義肅, 「頤齋集」
李灑, 「 성호집」
李玄逸, 「葛庵集」
鄭述, 「寒岡集」
趙翼, 「浦渚集」
강전섭, 「석문정구곡도가의 양식사적 고찰」, 「어문연구」제29집, 1997
강정서, 「조선후기의 무이도가 시인식」, 「동방한문학」17집, 동방한문학회, 1999
김기현, 김현식, 「내포문화의 탄생」, 북코리아, 2014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23, 국어교육연구회, 1990.
이민홍, 「사립파문학의 연구」, 월인, 20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총서」1-12, 2015
한국여행작가협회 편, 「충남도보여행」, 상상출판, 2014
김선희, 「죽천 김진규의 거제유배문학 연구」, 경상대학 석사논문, 2015
김영봉, 「조선조 무이도가에 대한 평가와 차운시의 양상」, 「열상고전연구」62, 2018, 135-165쪽
김홍제, 「병계 윤봉구」, 「송자학논총」5, 1998, 121-140쪽
선지영, 「구곡가계 시가의 변이와 미의식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11
손강영, 「存齋 魏伯珪의 說 研究」, 계명대 석사논문, 2009
신두환, 「조선 士人의 무이도가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대동한문학」27, 2007, 217-252쪽
심경호, 「포저 조의의 문학관과 문학」, 「한국실학연구」14권, 한국실학학회, 2007
이상주, 「화서학파 인물들의 음악의 암송 가창성에 대한 인식과 구곡시가」,
 「열상고전연구」64, 2018, 57-100쪽
이택동, 「屏溪의 시문에 투영된 인식과 그 사유」, 「한국고전연구」10, 2004, 157-182쪽
안은수, 「屏溪 尹鳳九 心論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32, 2009, 305-331쪽
정우락, 「주자 무이구곡의 한국적 전개와 구곡원립의 인문학적 의미」,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구곡문화」, 울산대곡박물관, 2010.
조성덕, 「무이도가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 석사논문, 2005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7